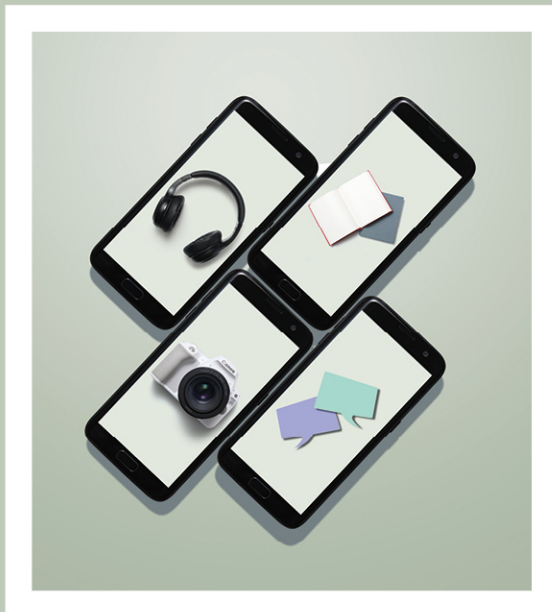


# 오늘의 도서관

VOL.  
285  
2020. 09



생각을 나누는 일은 서로의 다름을 이해하고 경험을 확장하게 합니다.  
책을 통해 작가와 독자가 소통하고 이야기의 울림이 세상에 퍼지듯이  
매체는 생각을 담고 메시지를 전하는 큰 그릇입니다.  
이제는 언어와 글의 장벽을 넘어서  
다양한 콘텐츠와 미디어로 저마다의 이야기를 표현하고 널리 공유합니다.  
수많은 매체의 숲에서 더 넓은 세상을 만나고, 생각의 힘을 키웁니다.  
더 견고해진 생각으로 새로운 목소리를 내어 세상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발행등록 11-137Q014-000026-06  
ISSN 2233-8632

월간 <오늘의 도서관>은 누리집(www.nl.go.kr)에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 목 차

2020. 09 VOL.285



10



16



36



48

## 사람과 책

4

에세이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

6

소문난 간서처

박상미 심리상담가·교수

10

오늘의 만남

안재훈 애니메이션 감독

## 사서 생각

16

사서의 기록

따로, 또 같이 독서의 달을 즐겨요

20

사서 추천 도서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하는 도서

26

화귀 자료 열람실

호기심 많은 조선시대 의관의 연구 노트

『소문사설』

## 시공 여행

32

인문학 감성 여행

양평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36

국내 도서관 탐방

청주금빛도서관

40

국외 도서관 탐방

우드리지 네이버후드 도서관

44

책과 디자인

전통의 변주 - 우리 것의 쇠퇴 혹은 찬사

## 오늘의 도서관

48

헤드라인 뉴스

2020년 공공도서관 통계 조사 결과 발표  
일제강점기 아동과 여성 강제동원 관련 자료 공개

50

국내 도서관 소식

53

국외 도서관 소식

54

국립중앙도서관 이용백서

디지털 자료 이용법

<오늘의 도서관> 9월호 카드뉴스를 SNS에서 만나보세요.

인스타그램 <https://www.instagram.com/nationallibraryofkorea>

페이스북 <https://www.facebook.com/nationallibrary.of.korea>

블로그 <https://blog.naver.com/todayslibrary>

유튜브 <https://www.youtube.com/nationallibraryofkorea>

월간 <오늘의도서관> 제30권 제7호 통권285호 발행일 2020년 8월 31일 발행등록번호 11-137Q014-000026-06

발행인 국립중앙도서관장 발행처 국립중앙도서관 편집위원 권정임, 김의래, 손정미, 송경진, 조선희, 홍영미 편집 [todayslibrary@mail.nl.go.kr](mailto:todayslibrary@mail.nl.go.kr)

주소 06579 서울특별시 서초구 반포대로 201 전화 02-590-6323 팩스 02-590-6329 누리집 [www.nl.go.kr](http://www.nl.go.kr)

제호 강병인 표지사진 안진호 디자인·제작 ㈜모두커뮤니케이션즈 02-6377-0516



<오늘의 도서관>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일러스트레이션 및 사진은 제외. 공공누리 자유이용허락제도란 공공기관의 저작권을 인정하는 동시에 이용허락 절차의 간소화를 통해  
공공저작물의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민간에게 공개하고 활용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www.kogl.or.kr](http://www.kogl.or.kr)





# 융합하는 문화 콘텐츠와 국립중앙도서관의 고민

초등학생 시절, 학교에서 집으로 오는 골목길에 만화방이 하나 있었다. 유혹에 시달리는 다른 아이들과 달리 나는 전혀 그곳에 들어가고 싶지 않았다. 집에 가서 부모님이 사 주신 동화책이나 어린이용 역사책을 읽는 것이 훨씬 재미있는데 비좁고 컴컴한 만화방은 그다지 매력적이지 않았다. 지금 돌이켜보면 우리 집 책꽂이에 꽂혀 있던 책들 역시 종이도, 인쇄 상태도 참 조악했지만, 그래도 만화방의 손때 묻은 만화책과는 비교가 안 됐다. 내 또래 사람이라면 가끔 어린이 유해 도서라며 만화책을 잔뜩 쌓아놓고 불태우던 퍼포먼스를 기억할 것이다. 아마 그런 분위기도 내가 만화방을 외면하는 데 한몫했을 것이다. 그때는 나를 착한 어린이였으니까.

불과 이삼십 년 전만 해도, 어쩌면 아직도, 도서관에서 만화는 금기시되는 자료인 경우가 많았다. 그림만 많고 글이 짧은 만화가 어린이의 독서 능력 발달을 저해한다거나 심지어 청소년 범죄를 유도한다는 온갖 비난을 받기도 했고, 어린이들이 너무 많이 몰려와서 읽기 때문에 관리가 어렵다는 실무적 이유로 도서관에서 눈에 안 띄는 구석 자리로 퇴출되기도 했다. 사서가 도서관에 만화책을 들여놓았다가 교장 선생님이나 도서관장에게 혼쭐이 나는 일도 더러 있었다고 한다. 그러나 좋은 만화책이 많이 출판되고, 뜻을 가진 사서들이 좋은 만화를 소개하는 서평을 써서 알리고, 만화 읽기의 장점을 이론과 실증으로 주장하는 학자가 많아지고, 만화를 수업에 이용하는 교사도 늘어나면서 도서관의 만화 자료에 대한 편견은 점점 사라진 것 같다. 지금은 오히려 만화를 도서관의 특성화 자료로 수집해서 이용시키는 도서관도 늘어나고 있다.



01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과 러시아국립청소년도서관이 지난해 5월에 공동개최한 전시 <만화소설과 애니메이션으로 만나는 러시아>.

02, 03 국립중앙도서관에서 2014년~2016년에 개최한 전시 <웹툰 체험전>. 웹툰 플랫폼과 지식재산권에 관해 살펴보는 기회를 마련했다.

만화가 인쇄물 형태를 벗어나서 인터넷 플랫폼을 중심으로 유통되면서부터는 웹툰이 대세이다. 몇몇 고소득 웹툰작가들이 유명세를 타는 스타가 되는가 하면, 초등학교생들의 장래희망 조사에서 웹툰작가가 상위권에 오른다고 한다. 인기리에 방영된 TV 드라마가 알고 보니 웹툰을 원작으로 한 사례는 너무 많다. <미생>, <송곳>, <이태원 클라쓰>, <편의점 샛별이> 등 인터넷 검색을 하면 익숙한 드라마 제목이 줄줄이 쏟아져 나온다. 만화든 소설이든 하나의 원천 콘텐츠가 다양한 장르로 파급되어 고부가가치를 만들어내는 이런 현상을 콘텐츠 산업계에서는 ‘One Source Multi Use(OSMU)’<sup>1</sup>라고 한다. 그런데 OSMU가 이제 옛말이 됐다. 요즘은 ‘Transmedia Storytelling(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 또는 ‘Multiplatform Storytelling(멀티플랫폼 스토리텔링)’의 시대이다. 만화를 영화화하고, 이를 다시 테마파크와 캐릭터 산업으로 키우는 방식으로 한 방향으로 전개해나간 디즈니사가 OSMU의 대표적 사례라면,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은 여러 창작자가 공통의 지적재산세계(IP universe)를 기반으로 웹툰, 웹소설, 웹드라마, 영화, 게임 같이 서로 다른 형태로 다양하게 변주된 콘텐츠들을 공개된 플랫폼에서 만들어내는 방사형 창작 구조다. 카카오페이지의 투자를 받아 지금 극장에 걸려 있는 영화 <승리호>와 다음웹툰에서 연재되는 웹툰 <승리호>는 공통의 지적재산세계에서 출발하지만, 이야기는 서로 다르게 전개된다.

한 시대가 만들어내는 문화 콘텐츠를 포괄적으로 수집해서 조직하여 이용시키고 보존함으로써 당대의 문화적 진보를 지원하고, 그 기억을 다음 세대에게 전달해야 하는 책임을 가진 국립중앙도서관으로서 이런 콘텐츠의 융합과 진화가 꽤 복잡하고 어려운 숙제이다. 책, 잡지, 신문 등 종이 인쇄물에 거의 모든 콘텐츠가 담겼던 과거가 그리워지기도 한다. 아, 옛날이여!

<sup>1</sup> OSMU는 한국에서만 통용되는 말하자면 콩글리시다. 영어권에서는 Media Franchise, 일본에서는 Media Mix라는 용어를 주로 쓴다.



## 책에서 찾은 삶의 의미

말 잘하는 사람은 참 많은데, 글도 잘 쓰는 사람은 드물다.

많은 사람이 말도 잘하고 글도 잘 쓰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하는지 묻는다.

나는 1년에 약 350회 대중 강연을 하고, 매주 칼럼을 쓰고 해마다 책을 내는 작가이기도 하다.

글로 다 기록하지 못하는 이야기는 카메라를 들고

다큐멘터리 영화로 찍기도 한다. 말하고 쓰고 찍는 사람이다.

### 독서는 성장을 위한 생존방식

영상과 글쓰기 중에 어느 쪽이 더 가치 있는냐고 묻는다면, 누구나 할 수 있는 말하기와 쓰기에 더 관심이 많다. 그래서 끊임없이 연구하고 배우고 실행하면서 '말 잘하고 글 잘 쓰는 법'에 대해 기록한다. 존경하는 이들의 인터뷰를 일간지에 3년 동안 연재하기도 했었다. 내가 존경하는 분들이 쓴 책을 모두 읽고, 깊은 대화를 나누면서 공통점을 발견했다.

'생각, 말, 글은 하나로 통한다'는 것이다.

생각은 언어로 이루어진 고도의 작용이다. 생각을 발전시키고 표현하는 수단이 말과 글이기에, 말하기와 글쓰기는 생각을 표현하는 방법이자 사고를 발달시키는 수단이다. 독서를 통해서 지식을 쌓고, 말하기와 글쓰기 연습을 하면 사고의 폭이 확대되고 표현력이 좋아진다는 걸 스스로 느끼게 된다. 어떻게 하면 내가 전달하고자 하는 내용을 가장 효과적으로 상대방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짧고 간결하면서도 강한 인상을 줄 수 있을까? 나만의 매력에 말과 글에 담기게 하려면 어떤 연습을 해야 할까?

우리는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평생 읽어야 한다.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말하고, 써야 한다. 우리가 말하기와 글쓰기에 대해 관심을 갖는 이유는 좀 더 나은 사람으로 살고 싶기 때문이다. 다방면의 책을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는 과정을 건너뛰면 화술이 좋은

사람은 될 수 있겠지만, 깊이 있는 말을 하고 글을 쓰는 사람으로 성장하기는 어렵다.

말하는 것과 글 쓰는 것, 듣는 것과 읽는 것은 차이가 확연하다. 말은 청중을 대상으로 해서 청중의 반응이 좋을 때와 나쁠 때 말의 내용은 크게 달라진다. 글쓰기는 오로지 나에게 집중해서 나의 지식에 경험을 보태서 글의 내용을 얼마든지 확장시킬 수 있다. 차분하게 주제를 설정한 다음, 지금까지 독서를 통해 쌓은 지식과 경험이 어우러져서 '나의 지식'과 '나의 경험'을 넘어서 생각이 확장된다. 글 쓰는 사람은 있는 그대로의 나 자신보다 '더 넓고 깊은 사유'를 담은 문장으로 독자에게 다가갈 수 있다. 글은 결코 말로 할 수 없는 진심을 고백하게 만드는 힘도 있다. 나를 확장하고 성장시키는 과정이 글쓰기다. 한 문장도 쓸데없는 문장을 쓰지 않되, 고민의 깊이가 드러나면서도 읽는 이의 마음에 잔잔한 감동까지 선사하는 문장은 어떻게 탄생하는 것일까? 독서밖에 답이 없다.

책을 읽지 않아도 글을 잘 쓰는 방법을 묻는 사람이 많다. 간혹 "나는 글은 잘 쓰는데 책은 안 읽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건 자신의 글이 좋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다. 글쓰기가 너무 어렵고 자신이 없다면, 독서를 하지 않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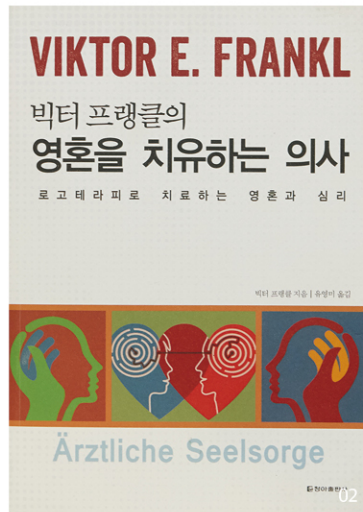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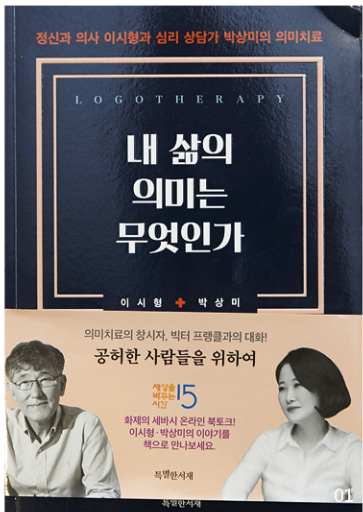
독서는 취미가 아니라, 생존방식이어야 한다. 다양한 독서를 통해서 지식의 영토를 넓혀가다 보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어느새



### 박상미

교도소와 소년원,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마음치유학교'를 연다. 치유, 회복, 공감, 소통을 주제로 강의하고, 글 쓰고, 다큐멘터리 영화를 찍는다. 현재 심리상담연구소 '더공간 마음학교' 대표, 한국의미치료학회 부회장이며, 경찰대학에서 강의한다. 방송은 EBS <파란만장> 라디오 <박상미의 마음마음>, <세상을 바꾸는 시간 15분>, 유튜브 <박상미 라디오>에서, 칼럼은 경향신문 '박상미의 고민사전'에서 만날 수 있다. 저서는 『박상미의 고민사전: 나를 믿어야 꿈을 이룬다』, 『마음아, 넌 누구니』, 『마지막에는 사랑이 온다』, 『나를 믿어주는 한 사람의 힘』, 『내 인생, 책 한 권을 낳았네』가 있고, 찍은 영화는 『마더 마이 마더』, 『내 인생 책 한 권을 낳았네』 등이 있다.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어 있을 것이다. 매일 읽고, 매일 쓰는 게 가장 좋겠지만, 우선은 많이 읽는 수밖에 없다. 세상의 모든 전문가의 공통점은 열심히 읽고, 쓰는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삶의 의미를 발견하고, 가치 있는 인생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많이 읽고, 생각하고, 토론하고, 써야 한다. 삶에서 얻은 지혜와 깨달음을 기록할 때 비로소 성장할 수 있다. 농익은 '나이의 향기'를 풍기는 어른이 되지 못하고, '나이의 권력'을 탐하는 꼰대가 많아진 이유는 간단하다. 책을 안 읽으면 그리 된다.

### 내 인생을 바꾼 책

책 한 권이 인생을 바꾸기도 한다. 죽음에서 의미 있는 삶으로 옮겨놓기도 한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아버지가 암으로 세상을 갑자기 떠난 후, 깊은 우울증에 빠졌던 나는 충동적으로 죽음을 생각한 적이 있다. 그때, 책 한 권을 만났다. 수년 전에 사놓고 읽지 않은 책, 빅터 프랭클의 <죽음의 수용소에서>였다. 죽음의 수용소에서 살아남은 자의 깨달음은 나에게 왜 살아야 하는지 답을 줄 것 같았다.

*'왜 살아야 하는지 아는 사람은 그 어떤 상황도 견뎌낼 수 있다'*  
-니체

*'삶에 어떤 목적이 있다면, 시련과 죽음에도 반드시 목적이 있을 것이다. 하지만 어느 누구도 그 목적이 무엇인지 말해줄 수는 없다. 각자가 스스로 알아서 이것을 찾아야 하며, 그 해답이 요구하는 책임도 받아들여야 한다. 그것을 찾아낸다면 어떤 모욕적인*

*상황에서도 계속 성숙해나갈 수 있을 것이다.'*  
-빅터 프랭클

*'인생을 두 번째로 살고 있는 것처럼 살아라. 그리고 지금 당신이 막 하려고 하는 행동이 첫 번째 인생에서 이미 그릇되게 했던 바로 그 행동이라고 생각하라.'*  
-빅터 프랭클

생명이 있는 모든 사람에겐 충족시켜야 할 의미, 실현해야 할 사명이 반드시 주어져 있으며, 나에게 발견되어 실현되길 기다리고 있는 '의미'가 있다는 말은 온몸에 전율을 일으켰고, 책을 읽는 내내 눈물을 참을 수 없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것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다.'*  
-니체

책 속에서 만나는 문장들이 나를 어루만지고 치유하기 시작했다. 나를 죽이지 못한 과거의 고통은 나를 더욱 강하게 만들 것이고, 미래의 나는 더욱 성숙한 모습으로 가치 있게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조금씩 갖게 됐다. '살아서 나처럼 마음이 힘든 사람들,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삶을 살아보자'는 욕구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

'죽음에서 다시 태어나 생명의 의미를 깨닫고 나면, 죽어가는 것들을 살릴 수 있다'라는 문구를 옥탑방 벽에 크게 써서 붙였다.

### 책을 통한 치유의 힘으로 상처를 보듬다

이후에 나는 빅터 프랭클이 창시한 '의미치료'를 직접 받고, 공부했다. 의미치료는 '인간이 존재의 의미를 찾아가는 의지'에 초점을



두는 이론으로, 삶의 의미를 찾음으로써 고통을 이겨내고 스스로 상처를 치유하는 법을 알 수 있도록 한다. 나는 우리나라에 의미치료를 처음으로 치료 현장에 도입하고 평생 의미치료를 해온 이시형 박사와 공동 집필을 했다. 삶의 의미를 찾으면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가치 있고, 살면서 세상을 위해 실현해야 할 사명을 발견하게 된다. 상처를 스스로 극복하고 삶의 의미를 발견할 수 있도록 안내하는 치유서가 필요하다는 생각에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를 집필하게 된 것이다. <죽음의 수용소에서>를 읽고 알게 된 의미치료를 상담 현장에 적용하면서 나는 매일 기적을 만났다. 교도소 퇴소 후에 힘들게 번 돈을 들고 와 "나처럼 가족이 없는 재소자들의 영치금으로 넣어달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재소자를 위해 자원봉사를 하겠다고 찾아오는 퇴소자도 있다. 변화된 그들은 '빛을 갠다'는 심정으로

01 정신과 의사이자 뇌과학자인 이시형 박사와 함께 집필한 <내 삶의 의미는 무엇인가> '의미치료'를 쉽게 설명한 치유 안내서이다.

02 빅터 프랭클이 지은 심리치료서 <영혼을 치유하는 의사> 박 교수가 즐겨 찾는 책이다.

03 박 교수가 독서 치료 교재로 삼고 있는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

04, 05 박 교수는 마음의 고통을 겪고 있는 사람들에게 마음치유 상담과 교육을 하며, 때로는 그 과정을 다큐멘터리 영화로 찍는다. 강원도 탄광마을 어르신들의 자서전 쓰기 과정을 담은 <내 인생, 책 한 권을 낳았네>는 대한민국 역사박물관 <한국 현대사를 만나다> 특별전에 초청 상영되기도 했다.

다시 찾아왔노라 말한다. 수차례 자살 시도를 한 경험이 있는 청년이 의미치료를 만난 후에 "오늘 한혈을 하고 왔어요. 내가 가치 없는 인간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피로 죽어가는 한 생명을 살릴 수도 있다고 생각하니, 존재 자체로 나는 의미 있는 사람이라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라고 고백하기도 한다.

우리는 누구나 잠재되어 있는 삶의 의미를 실현할 수 있다. 나는 요즘 한강의 장편소설 <소년이 온다>를 독서 치료 교재로 쓰고 있다. 가족을 잃은 상처를 가진 사람들과 읽으면서 치유와 회복의 경험을 하고 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들 때 읽은 책 한 권이 인생의 방향을 바꾸고, 책을 쓰게 만드는 길을 열어주었다. 지금 당신의 책상 위에는, 가방에는 어떤 책이 있을까. 그 책이 나의 삶을 바꾸고, 나아가 의미 있는 글을 쓰게 만드는 씨앗이 될 것이다.



# 한국 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재탄생시키다 안재훈 감독

지난 6월, 한국 애니메이션과 문학이 세계의 주목을 받은 좋은 소식이 있었다. 김동리의 동명 단편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옮긴 <무녀도>가 세계 최대 애니메이션 페스티벌인 프랑스 안시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척박한 국내 애니메이션 시장에서 20년 넘게 장편 애니메이션을 제작해온 안재훈 감독은 한국 고유의 2D 애니메이션 창작에 힘쓰며, 여러 편의 한국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한국 애니메이션의 가능성과 한국문학의 작품성을 세계에 알린 안재훈 감독을 국립중앙도서관 국제교류홍보팀 이광세 주무관이 만나 한국문학의 매력과 콘텐츠로서의 가치에 대해 얘기했다.

*‘애니메이션계의 칸영화제’라고 불리는 안시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수상한 소감이 궁금하다.*

우리 언어, 우리 문학으로 표현한 작품이 세계의 관심을 받게 돼 기쁘다. 애니메이션으로 시각화한 한국문학의 매력이 관객에게 전달된 데 보람을 느낀다. 크게 주목받지 못한 한국 애니메이션을 만들어나가는 일이 쉽지 않은 않았는데, 이번 수상을 통해 이 길을 꾸준히 향한 것에 대한 가치를 인정받은 것 같고, 앞으로도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힘이 됐다.

*수상한 작품이 김동리 작가 소설을 원작으로 한 <무녀도>이다. 애니메이션 <무녀도>에 대한 작품 설명을 부탁한다.*

<무녀도>는 1920년대 일제강점기 때 한국사회의 전통적인 무속 신앙과 기독교가 충돌하는 모습을 통해 당시의 시대상을 보여주는 작품이다. 비단 종교뿐만 아니라 옛것들이 사라져가고 새로운 것이 다가오는 데 대한 사람들의 태도, 사회의 시선이 잘 담긴 작품이다. 한국적인 음악과 춤이 뮤지컬 형식으로 가미된 작품인데, 주인공들의 이야기에 전통적인 장단과 최신 리듬을 혼합한 노래들이 녹아 있는 게 좋은 평을 받은 것 같다. 색으로 감정을 표현하는 노력도 많이 했다.

*<무녀도> 원작을 소재로 택한 이유가 궁금하다.*

지금은 한국사회가 경제 발전과 함께 많이 성숙해져서 서로의 다름과 차이를 포용할 수 있는 시대가 된 것 같다. 과거에 다름을 인정하지 못했던 시대를 돌아봄으로써 앞으로의 시간을 고민해보는 내용을 담고 있는 게 좋았다. 또 지금 디지털 시대가 되면서 사라지는 것과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 빠르게 교체되고 있는데, 이런 시대에 사회와 개인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가 옛날 소설임에도 잘 녹아 있다. 이 점이 굉장히 매력적이었다. 무녀와 무속신앙이 영화로는 다뤄진 적이 많지만 애니메이션으로는 소개된 적이 없어서 도전해보고 싶기도 했다. 매력적인 그림과 색감으로 표현되면 전 세계 애니메이션 관객들이 좀 더 색다른 작품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되겠다는 생각에 <무녀도>를 택했다.

*2012년부터 한국 근현대 단편소설을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있다. 그 이유가 궁금하다.*

한국 단편문학을 애니메이션 소재로 한 데는 여러 뜻이 있었다. 우선 우리 문학이 가진 이야기의 힘에 끌렸다. 한국 근현대 소설은 일제강점기 때를 배경으로 한 작품이 많은데, 당시에는 다양한 재능과 능력을 가졌어도 가질 수 있는 직업이 제한적이었다. 그래서



안재훈  
국내 스튜디오 제작 시스템을 도입, <연필로 영상하기>의 애니메이터이자 감독이다. 필름 시대를 거쳐 디지털 작업에 이르는 한국 애니메이션의 과정을 겪어오며, 단편 애니메이션에서 TV시리즈, 극장용 등의 장르를 모두 연출했다. 1998년 첫 단편 애니메이션 <하치코의 어떤 하루>를 시작으로 활발한 작품 활동을 했고, 2011년 첫 번째 극장용 애니메이션 <소중한 날의 꿈>을 연출했다. 2012년 <메밀꽃 필 무렵>에 이어 <운수 좋은 날>, <봄. 봄>, <소나기>, <무녀도> 등의 한국 단편문학을 애니메이션으로 제작했다. 올해 6월에는 프랑스 안시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에서 장편경쟁 '콩트르상' 부문 심사위원 특별상을 수상했다. 현재 <무녀도> 극장 개봉을 앞두고 있으며, 다섯 번째 장편 <살아오름: 천년의 동행>을 제작 중이다.



많은 사람이 소설이나 시를 통해 자신의 내면을 표출하고, 시대에 대해 이야기해서 문학에 한국 근현대사가 잘 드러나 있다. 그런데 이러한 우리나라의 모습이나 삶, 사람들의 이야기를 애니메이션으로 다룬 적은 없었다. 여러 아픔을 겪은 우리나라의 감성과 살아온 삶을 한국인은 물론 전 세계 사람이 공감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만들고 싶었다. 우리는 지금 과거의 가난하고 억압받던 시대와 너무나 다른 삶을 살고 있다. 지금에 오기까지 아픈 역사를 겪은 과정이 있었다는 것을 함께 느끼는 계기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아이들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싶기도 했다. 아이들의 지성과 감성이 크게 트이는 시기가 초등학교 6학년부터인데 그 나이 때 볼 수 있는 국내 애니메이션이 없더라. 우리 문학을 소재로 한 애니메이션이 있으면 학교 수업시간에라도 접할 수 있을 테고, 그러다 보면 우리 고유의 풍경과 사람에 대한 인지를 조금이라도 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디즈니 만화에 익숙한 아이들에게 우리가 만든 애니메이션을 꾸준히 선보이고 싶은 바람도 있었다.

*‘단편문학 프로젝트’는 토속적인 풍경을 섬세하게 그려낸 것이 특징이다. 2011년 첫 장편 <소중한 날의 꿈>도 1970년대를 배경으로 하는데, 주로 ‘과거’를 소재로 다루는 이유가 있다면 무엇인가?*  
내가 만든 애니메이션이 지금을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위로를 주

고 생각하는 기회를 줬으면 좋겠다. 그리고 미래를 살아가는 데 있어서 지표가 되길 바라는 마음이 있는데, 과거를 좀 더 잘 다져보는 것에서 시작하고 싶었다. 이전의 우리 모습이 어떻게 차곡차곡 쌓여서 앞으로의 모습을 생각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으로 지금보다 더 이전의 시대를 다루는 애니메이션을 만들었다.

*문학 작품을 그림으로 이미지화하는데 어려움은 없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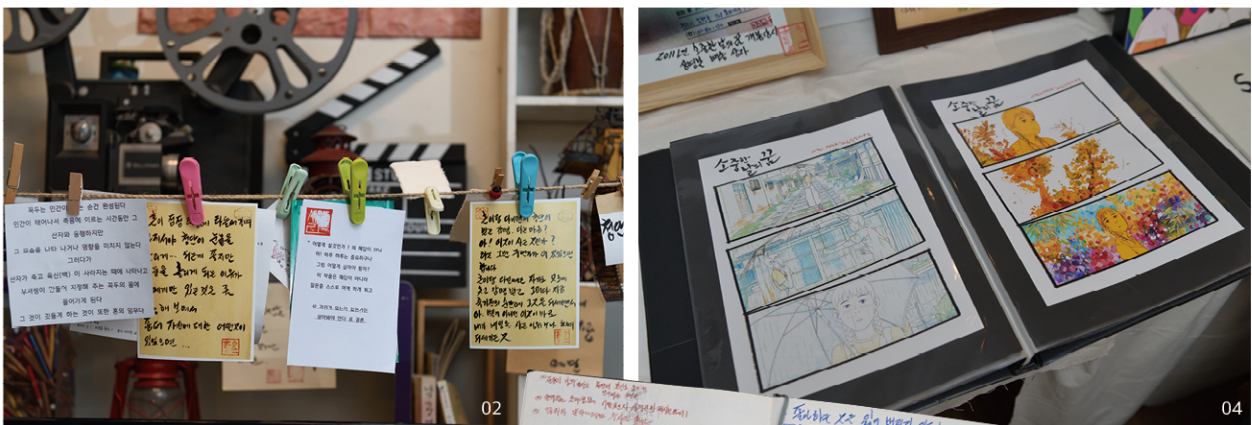
일제강점기 때 단편문학은 자료가 많지 않은 편이다. 그 시대에는 우리나라의 모습을 사진이나 그림으로 기록해두는 게 쉽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다 보니 지금에 와서는 자료가 거의 남아 있지 않아 당시의 모습을 그림으로 그려내기가 어렵긴 하다. 지금 사람들이 근대문학을 읽을 때 당시의 배경이나 공간이 잘 떠오르지 않아 이해가 힘든 부분도 있을 거다. 유럽이나 미국, 일본, 중국 같은 해외의 경우는 여행이나 수많은 창작물을 통해 그 배경을 어느 정도 기능할 수 있는데, 한국의 옛 모습은 지금의 아이들과 청년들이 가늠할 수 있는 자료나 기록들이 거의 남아 있지 않아 그런 것들을 발췌해서 그려가는 것이 상당히 힘든 점이었다. 하지만 이런 과정이 매우 중요한 고증 작업이라고 생각한다.

*문학 속 배경이나 장면을 구현하기 위해 어떤 과정을 거쳤나?*

책을 보고 나면 필사를 했다. 작가의 글을 따라 쓰면서 작가의 머



01



02

04

01 안재훈 감독과 국제교류홍보팀 이광세 주무관이 안 감독 작업실 ‘연필로 명상하기’ 스튜디오에서 만났다.

02, 03 아이디어나 좋은 글귀를 적어놓은 노트와 메모지.

04 안 감독의 첫 장편 <소중한 날의 꿈> 제작 노트.

릿속에 뭐가 그려졌는지 생각해본다. 도서관도 자주 갔다. 작업실 바로 옆이 남산도서관이어서 거기서 옛날 자료와 신문을 쌓아놓고 봤다. 단편문학을 소재로 한 작업이 재미있는 이유가 있다. 우리나라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수업시간에라도 근대문학을 읽었을 거고, 그때 각자의 머릿속에 그린 풍경과 장면이 있을 거다. 그것들을 작품화한다는 게 굉장히 재미있는 작업이다. 책을 보며 각자 느꼈을 감동을 또 다른 작품을 통해 연대할 수 있고, 우리 문학이 훌륭하다는 걸 함께 공감할 수 있으니까.

*애니메이션이라는 콘텐츠를 만드는 사람으로서 매체가 가진 영향력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나?*

내가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공유하고 싶은 생각을 좀 더 널리, 많은 사람에게 전할 수 있는 일을 한다는 건 큰 행운인 거 같다. 그런데 작품을 만들면서 조심해야 하는 부분도 있다. 힘들 때 누군가가 어쭙잖게 위로하는 말은 정말 듣기 싫지 않나. 그래서 내 작품도 사람들에게 함부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아무런 메시지가 없는 작품을 만들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한다. 내 그릇된 판단으로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는 건 더 위험하다. 그래서 작품을 만들 때마다 치열하게 공부하고 연구한다. 이런 작업이 어렵기도 하지만, 사회의 문제점이나 현상에 대해 함께 고민하고 생각해보는 화두를 던질 수 있다는 것에 의미를 느낀다.

*창작의 원동력은 무엇인가?*

20대에 국립중앙도서관에 자주 갔는데, 홀로 책을 읽었던 그때의 기억들이 아직도 생생하다. 미래가 불안했기에 그곳에 있으면 숨어 있을 곳을 찾은 것처럼 마음이 편해지고 위안이 됐다. 도서관의 많은 책이 나를 든든하게 했다. 훗날 내게 어떤 도움이 될진 모르지만 장르를 가리지 않고 다독을 했다. 책은 다른 것에 의존하지 않게 해준다. 때론 그림 그리는 게 힘들고, 의욕이 떨어질 때도 있는데 그럴 때마다 온전하게 나를 붙잡아주는 책들이 있어 의지가 된다. 살면서 수천 명을 만날 수 없고 수만 곳을 여행할 수 없는데, 책은 저 너머를 볼 수 있는 다양한 기회를 주기에 생각을 깨워주는 친구다. 한 가지를 더 꼽자면 다큐멘터리도 큰 공부가 된다. 다큐멘터리는 연출로 찍을 수 없는 가공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그 안에 우리의 삶이 그대로 녹아 있다. 그래서 다큐멘터리를 보며 사람들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한국인만의 감성을 들여다본다. 이런 한국적 감성이 내 작품에 깊게 담기도록 노력한다. 그래서 세계 관객들이 안재훈의 작품은 할리우드나 일본의 애니메이션과는 다른 매력이 있다는 것을 느꼈으면 좋겠다.

*지금도 도서관을 자주 가나?*

근래에는 예전만큼 자주 가진 못하지만, 근처 남산도서관은 종종 들른다. 도서관에는 다양한 책이 잘 정리되어 있고, 내게 없는 책





안 감독의 단편문학 시리즈  
안시국제애니메이션 영화제  
특별상을 수상한 <무녀도>와  
<운수 좋은 날>, <소나기>.



을 발견하는 재미가 있어서 도서관에 가면 항상 즐겁다. 우리나라 도서관은 한국 문화의 다양성을 이루는 데도 큰 역할을 한다. 한국 영화가 극장에서 독과점하면서 다양성이 사라져갈 때 의외로 도서관이 관객들의 선택을 받을 기회조차 잃은 영화를 관객과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 또 우리가 관심을 가져야 할 지식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하는 것을 보았다. 도서관이 책만 진열해놓은 곳이라면 책의 무덤과 다를 바 없다. 그런데 지금 도서관 사서들은 다양한 분야에 대한 식견을 갖추고 이용자들이 문화와 지식을 접하게 하는데 큰 기여를 하는 것 같다.

#### 안 감독이 바라는 도서관의 사회적 기능이 있다면 무엇인가?

책과 자연스럽게 어우러지는 공간이 됐으면 좋겠다. 도서관에 특별한 목적 없이 그냥 놀러 가서 온종일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은 경험이다. 사색은 자기를 돌아보고 새로운 발상을 하는 데 정말 훌륭한 방법이다. 그런데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가치 없다고 여기는 것 같다. 도서관에 쉽게 발걸음하고 편하게 머물다 갈 수 있는 장이 마련되면 책을 접하는 것도 일상이 될 것이다. 문화의 다양성을 형성하는 하나의 대안이 도서관이기도 하다. 최근에 신축되는 도서관은 물론이고, 많은 도서관에서 영상물을 상영하는 공간을 만들어가고, 책과 연관 지은 영화를 상영하기도 하는데, 이런 문화 프로그램을 통해 더 다양한 작품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생기길 바란다. 또 하나 바라는 점이 있다면 해외의 오랜 역사를 지닌 도서관처럼 우리 도서관도 오랫동안 변하지 않고 보존됐으면 좋겠다. 젊었을 때 다녔던 도서관에 할아버지가 되어 다시 왔어도 손때 묻은 공간이 그대로 남아

있고, 그 세월을 함께한 사서가 여전히 그 자리에서 책을 소개하는 유서 깊은 도서관이 많아지길 바란다.

#### 앞으로 계획하는 목표나 꿈은 무엇인가?

작품은 보는 관객이 있어야 생명력을 갖고 존재할 수 있다. 단편문학 애니메이션을 처음 시작할 때는 독립영화 전용관이나 작은 영화관이 조금씩 생겨나고 있어서 단편문학 시리즈를 1년에 한 편씩 꾸준히 만들면 작품의 다양성을 형성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 같았다. 실제로 <메밀꽃 필 무렵>을 개봉했을 때 그런 분위기를 느꼈다. 전국의 작은 영화관에도 학생들이 찾아오고 극장이 활기를 띠었다. 그런데 이후로 극장 환경이 완전히 바뀌었다. 지금은 하나의 대형 영화가 전체 상영관의 90% 이상을 차지한다. 이런 환경에서는 다양한 장르의 작품을 선보이기가 점차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단편문학 애니메이션 제작에 한계를 느끼는 이유다. 지금은 현재 한국의 모습과 앞으로의 우리 사회를 그리는 애니메이션을 만들고 있는데, 좀 더 많은 관객을 확장할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사람들에게 위로와 행복을 전하고 싶다. 미키마우스가 1930년대생이고, 마블의 수많은 원작이 1930~50년대에 그려진 만화다. 그런데 100년 가까운 시간이 지난 다음에야 큰 인기를 누리는 문화 콘텐츠가 됐다. 지금 우리가 무엇을 만드느냐가 앞으로 100년 뒤의 콘텐츠 시장을 내다보는 것이다. 먼 훗날까지 지금 대한민국을 그린 애니메이션을 남길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

**YouTube** 국립중앙도서관 유튜브 공식 채널에서 인터뷰 영상을 볼 수 있습니다.

#### 사서 생각

## 책의 온기를 나누는 시간

책을 좀 더 가까이, 즐겁게,  
가치 있게 접하는 길을 찾아가는  
도서관은 새로운 계절 독서의  
시간을 맞이할 준비를 한다. 도서관  
곳곳을 다시 둘러보며 재정비하고,  
책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간을  
만들며 이용자와 함께하는 따뜻한  
순간을 기다린다.



# 따로, 또 같이 독서의 달을 즐겨요

9월은 전국 도서관에서 다양한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선보이는 독서의 달이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오프라인 행사가 축소되기는 했지만, 온라인을 활용한  
다채로운 행사를 더했다. 각 지역 도서관이 추천하는 독서의 달 프로그램을 소개한다.

\* 코로나19 심각 정도에 따라 일부 행사는 변경 및 취소될 수 있음. 자세한 사항은 각 도서관에 문의.



## 경북도서관

팝업북을 주제로 한 기획전시, 북콘서트, 체험 프로그램을 비롯해 북가락 문화 아카데미, 판타지 매직쇼 등 다양하고 풍성한 볼거리와 선물을 준비했어요. 포춘쿠키의 문제를 풀어 상품을 받는 럭키박스 이벤트, SNS 및 관내 게시판을 통한 '나에게 힘이 되는 구절' 필사 인증 행사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동화책 포토월도 재밌는 볼거리랍니다.



## 광주광역시립무등도서관

'AI시대의 책 읽기 & AI시대의 글쓰기' 주제로 아이의 독서 법과 글쓰기 지도법 강연이 열립니다. 신형철 문학평론가와 책의 힘, 독서가 주는 위안에 대해 이야기 나누는 시간도 가져요. '뚝뚝뚝 마이북 만들기', '슬기로운 독서생활' 등 재밌는 체험 프로그램에도 참여해보세요. 사서가 추천한 책도 읽고, 나만의 액자도 만들어볼 수 있어요.



## 대구광역시립중앙도서관

도서관 곳곳에 숨겨진 도장을 찾고, 미션 퀴즈를 풀어 응모하면 추첨을 통해 선물을 주는 '도서관 탐험대' 행사가 열려요. 게임 형식으로 도서관 곳곳을 알아보며 도서관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독서를 즐겁게 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거예요.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다양한 독서문화 행사도 운영되니 도서관 홈페이지를 확인해주세요.



## 대전광역시 한밭도서관

책을 사랑하는 사람들을 위한 다채로운 강연과 공연, 이벤트가 열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와 프로이트의 행복론을 비교하며 함께 읽는 강연, 인간 내면을 그려낸 에곤 실레의 그림과 밀란 쿤데라의 책 <농담>의 내용을 이해하는 강연을 들어보세요. 인형극단 '애기똥풀'이 선보이는 어린이 인형극 공연도 기대하세요.



## 부산광역시립시민도서관

9월 한 달 동안 매일 30분씩 책을 읽고, 그 내용을 기록하는 챌린지 형식의 행사가 열려요. 신청자에게 기록지가 배부되고 한 달 후 완성된 기록지를 제출하면 선착순으로 상품과 인증서를 드립니다. 또 시낭송가 서랑화님과 시를 읽으며 시낭송법, 시낭송 발성법을 배우는 '시낭송 아카데미'도 함께해요.





### 서울특별시교육청 정독도서관

한국-스페인 수교 70주년을 기념해 스페인 도시와 문화 예술의 견문을 넓히는 온라인 강연을 준비했는데요. <아트인문학 여행: 스페인> 저자 김태진 작가를 초청해 안달 루시아, 톨레도, 바르셀로나, 피게레스에 얹힌 인문학과 예술 강연을 엿니다. 도서관에서는 아트 프린트 전시, 원화 전시, 독서 토론 등 오프라인 행사도 열려요.



### 수원시립선경도서관

어린이와 학부모에게 유익한 알찬 온라인 강좌를 준비했어요. <수영장에 간 아빠> 유진 작가와 두려움을 극복하고 용기를 내는 과정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그림책 김건숙 작가와 그림책으로 힐링하는 시간을 가져보세요. 연극인故(고) 김성열의 아카이브전 <是是非非 랩소디>, 연극·희곡 도서 및 그림책 전시 등 풍성한 볼거리도 준비돼 있어요.

**9월 독서의 달 - 슬기로운 랜선생활**

**온라인 book 클래스**

**툴스토이 완독 챌린지**

**손끝으로 만나는 시(詩)**

**기간:** 9. 8. ~ 9. 29. (매주화, 10:00~11:30)  
**장소:** 온라인 접속(ZOOM)  
**대상:** 전담도민(성인) 20명  
**내용:** 관심있는 주제를 글로 표현하고 나만의 책만들기

**기간:** 9. 7. ~ 9. 25. (평일)  
**장소:** 온라인 접속(네이버 밴드)  
**대상:** 전담도민(성인) 20명  
**내용:** 톨스토이 단편선 매일 정해진 분량 읽고 감상 나누기

**기간:** 9. 14. ~ 9. 25. (평일)  
**장소:** 온라인 접속(네이버 밴드)  
**대상:** 전담도민(성인) 20명  
**내용:** 스케줄에 맞춰 시(詩) 손 필사와 감상나누기

**전라남도립도서관**  
Jeonnam Library



### 전라남도립도서관

온라인·오프라인에서 다양하게 열리는 독서 프로그램을 즐겨보세요. 카카오톡, 네이버밴드, ZOOM 등의 온라인으로는 고전문학 30일 완독 챌린지, 온라인 book 클래스, 손끝으로 만나는 시를 만나볼 수 있어요. 부모 독서 교육, 작가와의 만남, 캘리그라피 수업, 독서 토론회 등의 강연 및 토론회도 열린답니다.



### 제주한라도서관

작은도서관과 함께 온라인 독서 체험 프로그램을 운영해요. 북 토크 저자 초청 강연회와 어린이 집콕 미술 놀이쇼 공연, 나만의 북 트레일러 독서 체험, 독서 서평, 제주어 시 쓰기 체험 활동, 제주 인문 독서 아카데미, 제주어 이야기 어른신 등의 독서 프로그램을 마련합니다. 책놀이지도사 양성 과정과 캘리그라피 강연에도 많은 관심 가져주세요.



### 울산도서관

오감이 즐거워지는 시간을 보내고 싶다면 울산도서관으로 오세요. 커피를 배우는 '가을앳커피', 원예 체험, 여행지의 상징물을 클레이 마그네틱으로 만드는 등 재밌는 체험 행사를 비롯해 <알밤 소풍> 김지안 작가, 양영훈 여행작가와 함께하는 강연도 열립니다.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를 큐레이터와 함께 감상하는 공연도 보세요.



### 인천광역시 미추홀도서관

책과 함께 여유를 느끼는 힐링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전래동화 <팔죽할멈과 호랑이>를 각색한 인형극 공연과 '초등 자녀 매일공부 방법' 강연을 자녀와 함께하세요. <퇴근 후, 그림책 한 권>의 저자 윤정선 작가 강연과 그림책 <어느 날, 우리는>의 원화 전시도 마련됩니다. 도서관과 관련된 초성 퀴즈 이벤트에도 많이 참여해주세요.



### 청주시립도서관

장서 특성화 분야인 '예술'을 주제로 한 북큐레이션 <그림과 마음: 그림을 읽고 마음을 쓰다>를 운영해요. 이번 북큐레이션은 관련 도서와 그림을 함께 전시하고, 연계 행사로 <러빙 빈센트> 영화 상영과 'DIY 나만의 명작 그리기' 강좌를 마련해 전시 개념의 북큐레이션을 참여형으로 확장 운영하니 많이 참여해주세요.

**2020 충남도서관 독서의 달 행사**

**기간:** 2020. 9. 1.(화) ~ 9. 30.(수)  
**대상:** 도서관 이용 회원 및 충남도민 누구나  
**장소:** 충남도서관 문화교육관 3층, 다목적실, 야외무대 등  
**주요내용:** 19개 프로그램

- 예술작품, 이야기의 원형
- 인문학 강연,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이해의 길에 걸리는 독서일터
- 북큐레이터 전시, 다독자 시장 및 각종 이벤트

**문의:** 041-635-8000, 041-635-8065

구분	프로그램	기간	장소	구분	프로그램	기간	장소
공통	독서의 달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어린이	책과 함께 놀자	9. 1. ~ 9. 30.	충남도서관
	책과 함께 놀자	9. 1. ~ 9. 30.	충남도서관		책과 함께 놀자	9. 1. ~ 9. 30.	충남도서관
	책과 함께 놀자	9. 1. ~ 9. 30.	충남도서관		책과 함께 놀자	9. 1. ~ 9. 30.	충남도서관
	책과 함께 놀자	9. 1. ~ 9. 30.	충남도서관		책과 함께 놀자	9. 1. ~ 9. 30.	충남도서관
인문	인문학 강연	9. 1. ~ 9. 30.	충남도서관	청소년	청소년 독서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인문학 강연	9. 1. ~ 9. 30.	충남도서관		청소년 독서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인문학 강연	9. 1. ~ 9. 30.	충남도서관		청소년 독서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인문학 강연	9. 1. ~ 9. 30.	충남도서관		청소년 독서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가족	가족 독서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노년	노년 독서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가족 독서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노년 독서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가족 독서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노년 독서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가족 독서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노년 독서 캠페인	9. 1. ~ 9. 30.	충남도서관



### 충남도서관

코로나19로 지친 도민들을 위해 다양한 독서 문화 프로그램을 준비했어요. 가을밤 달달 북 콘서트, 어린이 뮤지컬, 인문학 강연, 그림책 작가와의 만남, 아빠와 함께하는 독서 캠프 등 총 19개 프로그램을 선보입니다. 프로그램별 신청 접수 및 기간은 도서관 홈페이지(<https://library.chungnam.go.kr>)를 참고해주세요.



# 지혜와 지성을 일깨우는 삶의 멘토



©게티이미지뱅크

국내 문학 분야

## 도서관을 떠나는 책들을 위하여

오수완 지음 | 나무옆의자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813.7-20-405=2

호펜타운 반디멘 재단 도서관이 지난 6월 30일에 공식적으로 문을 닫았다. 이 책은 호펜타운 도서관의 유일한 사서이며, 관장 대리인 에드워드 머레이가 폐관이 결정된 후 서가 한쪽에 빈센트 쿠프만 컬렉션이라는 이름으로 모아두었던 마지막 기증 자료 32권의 희귀본을 기록으로 남긴 빈센트 쿠프만 컬렉션에 관한 카탈로그다. 세상에 존재하지 않는 가상 희귀본을 접하는 재미와 함께 도서관을 찾는 사람들에 대한 에피소드도 담겨 있어 실제로 존재했던 도서관의 이야기를 듣는 듯한 착각이 드는 흥미로운 책이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일의 기쁨과 슬픔 | 장류진  
2층 문학실 813.7-19-1213=2  
로야 | 다이앤 리  
2층 문학실 813.7-19-446=2  
책 사냥꾼을 위한 안내서 | 오수완  
4층 도서자료실 813.7-10-1672=2

국내 문학 분야

## 모두 너와 이야기하고 싶어 해

은모든 지음 | 민음사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813.7-20-667=2

오랜만에 가지는 휴가 첫날, 과외교사 경진은 학생 해미가 연락이 되지 않는다는 전화를 받는다. 학교에서 혼났다는 해미의 말은 들었지만 별일 아니겠지 하는 마음에 자세히 물어보지 않은 자신을 떠올리며 해미의 연락을 기다리는 경진에게 사람들이 이야기를 건네기 시작한다. 경진은 휴가 동안 만나게 된 다양한 사람의 희로애락이 담긴 이야기를 듣게 된다. 이 책은 경진이 만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담하게 들려줌으로써 일상에 지친 우리에게 작은 위로를 건네고 주변을 돌아보게 한다.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를 위해 웃다 | 정한아  
4층 도서자료실 813.6-9-595=2  
바깥은 여름 | 김애란  
4층 도서자료실 813.7-17-831=2  
내가 말하고 있잖아 | 정용준  
2층 문학실 813.7-20-815=2

국외 문학 분야

## 거의 떠나온 상태에서 떠나오기

데이비드 포스터 월리스 지음 |

이다희 옮김 | 바다출판사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844-20-13=2

여러 시점을 나누어 관찰된 사건의 나열은 책 속에서 길을 잃게 한다. 우울증에 시달리며 세상 온갖 것에 멀미를 호소하는 작가는 자신의 글에 친절한 안내자는 아니다. 하지만 그는 멀미를 유발하는 미치광이 같은 세상에 집요하게 파고들며 자기 글의 유일한 '결정자'가 되기 위해 분투한다. 총 5편의 에세이로 구성된 이 책에는 심오하면서도 재밌고, 박식하면서도 독특한 저자의 매력이 담겨 있다.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이 세상에서 내가 사유하고 살아가고 싶은 방식의 본보기"라고 말하는 작가가 그려낸 세상 속으로 떠나보자.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오래 준비해온 대답 | 김영하  
2층 문학실 816.7-20-41=2  
이상하고 자유로운 할머니가 되고 싶어 | 무루  
2층 문학실 818-20-772  
쓰지 않으면 사라지는 것들 | 제임스 설터  
2층 문학실 844-20-6=2



국외 문학 분야

## 카구야 프로젝트

원산 지음 | 정세경 옮김 | 아작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823.7-20-28=2

홍보회사를 운영하는 매리언은 차를 타고 가다가 사고를 당한다. 깨어나니 이곳은 뭔가 다른 세계이다. 이 세계에서는 아이들을 부모가 키우지 않고, 국가양육부 소속의 육아원에서 기른다. 아이를 위해 일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지만, 이 세계에서도 출산율은 낮아진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카구야 프로젝트'가 만들어지고, 매리언은 이 프로젝트의 홍보 및 관리 책임자가 된다. 그러던 어느 날, 프로젝트에 참여한 한 아이가 누군가에게 납치를 당하는데... 과연 '카구야 프로젝트'는 성공할 수 있을까?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그리고 여자들은 침묵하지 않았다 | 크리스티나 달처  
2층 문학실 843.6-20-66=2  
역향유괴 | 원산  
2층 문학실 823.7-19-14=2  
엄마로 태어난 여자는 없다 | 송주연  
4층 도서자료실 337.04-20-6=2



사회과학 분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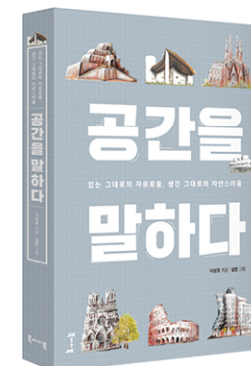
## 공간을 말하다

이상호 지음 | 설한 그림 | 북바이북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331.47-20-10=2

이 책은 도시공학과 교수인 저자가 공간 역사학부터 공간 미래학까지 열두 가지 학문적 시각에서 바라보는 공간 이야기를 담고 있다. 하나의 공간을 열두 가지 시선으로 들여다보니, 그 느낌 또한 다양하고 흥미롭다. 책의 순서대로가 아닌 열두 가지 학문 중에 끌리는 것부터 읽어도 좋은 구성이다. 공간에 관한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사진이 아닌 그림을 함께 실은 것도 이 책의 큰 장점이다. 따스한 색감의 그림과 함께 저자가 말하는 자유롭고 자연스러운 공간 속으로 함께 들어가 보자.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공간이 만든 공간 | 유현준  
4층 도서자료실 540.04-20-4=2  
공간 혁명 | 세라 W. 골드헤이건  
4층 도서자료실 540.01-19-2=2  
스마트시티 | 이상호, 임운택, 안세윤  
4층 도서자료실 539.7-17-63=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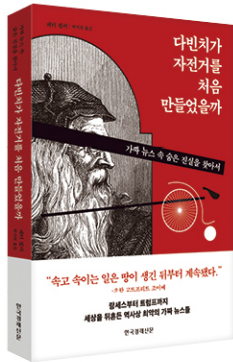
사회과학 분야  
언컨택트



언컨택트(Uncontact)는 비접촉, 비대면, 즉 사람과 직접적으로 연결되거나 접촉되지 않는다는 뜻이다. 저자는 코로나19가 언컨택트를 향한 흐름의 티핑 포인트(Tipping point)로 작용했지만, 일상 속 언컨택트는 우리 사회와 문화 속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었음을 강조한다. 이 책은 다양한 분야에서의 언컨택트 트렌드를 흥미롭게 보여주며, 인간 사회가 시공간의 제약을 넘어서서 더 원활하고 효율적인 '컨택트'를 위해 기술적으로 구현된 '언컨택트'를 받아들이게 될 것이라 말한다.

김용섭 지음 | 퍼블리온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331.5414-20-2=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문샷! 사피바칼  
4층 도서자료실 325.24-20-43=2  
코로나 이후의 세계 | 제이슨 생커  
4층 도서자료실 331.5414-20-6=2  
코로나 투자 전쟁 | 정채진 외  
4층 도서자료실 327.856-20-41=2



인문예술 분야  
다빈치가 자전거를 처음 만들었을까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자전거를 발명했다는 이야기를 들어봤는가? 누군가가 다빈치의 스케치를 조작해 자전거는 다빈치가 발명했다는 잘못된 소식이 퍼져나갔고 결국 다빈치의 자전거는 허구로 밝혀졌다. 우리는 현실과 상상이 뒤섞이고, 가짜 뉴스가 공식 뉴스가 되는 '탈진실의 시대'에 살고 있다. 이 책은 과거와 현재를 통틀어 가장 기이하고 유명했던 가짜 뉴스들을 흥미롭게 전달한다. 가짜 뉴스에 대한 이야기를 읽다 보면 넘쳐나는 정보 속에서 숨은 진실을 발견하는 능력도 생겨나지 않을까.

페터 퀴러 지음 | 박지희 옮김 | 한국경제신문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070.42-20-4=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가짜뉴스의 고고학 | 최은창  
4층 도서자료실 070.42-20-2=2  
포스트트루스 | 리 맥킨타이어  
4층 도서자료실 331.15-19-2=2  
만들어진 진실 | 헤더 맥도널드  
4층 도서자료실 070.19-18-3=2

사회과학 분야  
전지적 불평등 시점



우리 사회에 만연해 있는 불평등과 부조리에 유머와 해학 가득한 글로 시원하게 일침을 가하는 사회의 '모든 을(乙)'들을 위한 에세이다. 법보다 위에 있는 돈과 권력, 학연과 지연만 있으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은 과연 어떻게 만들어진 것일까? 작가는 대한민국에서 살아가는 '모든 을(乙)'들에게 현실을 회피하지 말라고, 비굴해지지도 말라고 한다. 불평등한 현실에 울분을 토하고 싶을 때 잠시나마 머리를 식히며 마음을 가다듬게 해줄 수 있는 책이다.

명로진 지음 | 더퀘스천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330.4-20-3=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공정하지 않다 | 박원익, 조윤호  
4층 도서자료실 331.234-19-9=2  
세습 중산층 사회 | 조귀동  
4층 도서자료실 332.6-20-2=2  
시험인간 | 김기현, 장근영  
4층 도서자료실 330.911-20-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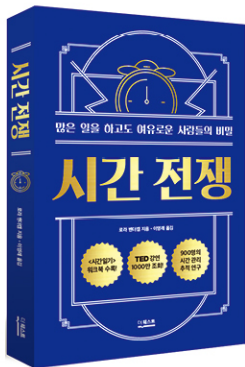
인문예술 분야  
미술관에 간 물리학자

저자는 초고속 광학과 나노과학을 연구하는 물리학자로 미술은 물리학 및 광학의 발전과 궤를 같이하며, 르네상스 시대 이후 예술가들에게 가장 큰 영감을 선사한 뮤즈(muse)는 물리학이었다고 얘기한다. 다양한 예시를 통해 '빛'을 연구하던 당시의 과학계와 미술계의 모습을 설명하고, 우리에게 익숙한 작품들을 과학적인 배경과 맞물려 소개해주어 새로운 감상 포인트와 지식을 제공한다. 책을 덮고 나면 미술 작품을 보는 눈이 한층 넓고 깊어질 것이다.

서민아 지음 | 아바웃북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650.4-20-3=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관계의 과학 | 김범준  
4층 도서자료실 420.04-20-1=2  
인투더쿨 | 에릭 D. 슈나이더, 도리언세이건  
4층 도서자료실 426.7-19-1=2  
드로잉피직스 | 돈 레몬스  
4층 도서자료실 420.09-19-3=2

사회과학 분야  
시간전쟁



우리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하지만 저자는 시간은 아주 풍족하며 정말 중요한 일을 할 시간은 충분하다고 말한다. 저자는 늘 바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자신의 시간을 추적해보는 '시간일기'를 써보라고 권한다. 시간일기에 하루를 기록하면서 일의 우선순위를 정해 실행하고 시간을 추적해보면 시간의 사각지대를 발견하게 되고 제대로 활용하지 못한 시간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이다. 일상에서 사소한 것들을 바꿈으로써 삶이 바뀌는 가치를 경험해보자.

로라 밴더캠프 지음 | 이영래 옮김 | 길벗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325.2112-20-3=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메이크타임 | 제이크넵, 존 제라츠키  
4층 도서자료실 325.2112-19-10=2  
시간을 멈추는 기술 | 페드람 쇼자이  
4층 도서자료실 325.211-18-203=2  
소소한 시간혁명 | 이영직  
4층 도서자료실 325.2112-16-2=2



인문예술 분야  
천년의 수업

이 책은 수천 년 동안 이어진 인간 삶의 태도에 관한 9가지 본질적 질문에 대한 성찰로 어떤 답을 선택할 것인지 그리스 로마의 인물들에게 조언을 구한다. 오이디푸스의 이야기를 통해 자신이 누구인지 안다는 착각이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생각하게 하고, 불멸의 명성을 얻기 위해 죽음을 불사하는 호메로스 영웅을 이야기, 불멸의 삶을 살 수 있는 기회를 거절하는 오디세우스의 선택은 죽음의 가치를 생각하게 한다. 자신의 삶에 주어진 질문에 답을 내려보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이다.

김현 지음 | 다산초당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001.3-20-30=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누구나 철학자가 되는 밤 | 김한승  
4층 도서자료실 104-20-14=2  
인문학의 뿌리를 읽다 | 김현  
4층 도서자료실 001.3-16-10=2  
그리스 로마 신화 | 토마스 볼핀치  
4층 도서자료실 219.2-16-3=2



인문예술 분야

## 나의 다정하고 무례한 엄마



이 책은 가족관계에서 생기는 갈등 이면에 존재하는 엄마와의 관계를 재조명하고, 심리학적 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다양한 상담 사례를 통해 현실적인 가족치료 방안을 제시한다. 30년 넘게 가족 상담을 진행해온 저자는 가족관계에서 가장 본능적이고 근본적인 대상인 엄마에 주목한다. 가족관계에서 발생하는 다양한 갈등 중 가장 은밀하고 미묘한 갈등의 대부분이 엄마와의 관계에서 생긴다는 것이다. 이 책을 통해 엄마가 준 상처로부터 따뜻하게 나를 일으키는 방법을 찾아보기를 권한다.

이남옥 지음 | 라이프앤페이지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186.3-20-47=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좋은 말씨 | 법정  
4층 도서자료실 220.4-20-23=2  
생각이 바뀌는 순간 | 캐서린 A. 샌더슨  
4층 도서자료실 189.1-19-60=2  
말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 한성희  
4층 도서자료실 180.4-13-8=2

자연과학 분야

## 의자의 배신



책은 기원전 5억 년부터 디지털 혁명에 이르기까지 인류 진화의 일대기를 펼친다. 더 편하고 풍족한 삶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생활 방식이 변할 때마다 다 인류가 사는 환경도 바뀌었고, 이에 미처 적응하지 못한 몸은 당뇨, 허부 요통, 관절염, 지방간, 근시, 만성 폐쇄성 폐 질환 등 전에 없던 부산물을 얻게 됐다. 저자는 현대인들이 많은 시간을 의자에서 보내는 것이 결정적인 문제라고 말하며, 진화의학의 입장에서 진화와 환경의 불일치를 이해하고 건강을 지키기 위한 방안을 제시해준다.

바이바 크레건리드 지음 | 고현석 옮김 | 박한선 해제 | 아르테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471.5-20-1=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당신의 주인은 DNA가 아니다 | 브루스 H. 립턴  
4층 도서자료실 476.10733-11-1=2  
우리 몸 오류 보고서 | 네이션 렌츠  
4층 도서자료실 511.1-18-27=2  
우리 몸 연대기 | 대니얼 리버먼  
4층 도서자료실 471.2-18-11=2

자연과학 분야

## 숫자가 만만해지는 책



저자는 신문 기사나 자료에 인용된 숫자의 오류를 예를 들며 수를 다루는 몇 가지 방법을 설명한다. '내가 사는 동네에는 총 몇 대의 자동차가 있을까?', '매일 몇 명의 사람이 이사할까?'처럼 실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질문을 던지고 추정치, 어림 계산 등 단순한 방법으로 해답을 추론하는 과정을 보여준다. 그리고 여론조사 그래프나 각종 통계에 숨어 있는 속임수에 대처하는 방법을 소개함으로써 스스로 정보를 판단할 수 있도록 안내한다. 이 책을 통해 숫자의 의미를 읽어내는 '숫자 무기'를 마련해보자.

브라이언 W. 커니핸 지음 | 양병찬 옮김 | 어크로스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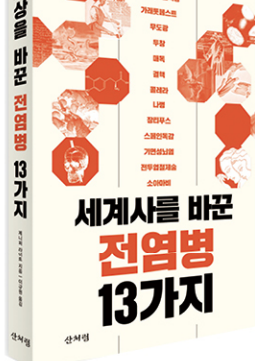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410.4-20-6=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수학의 쓸모 | 닉 폴슨, 제임스 스콧  
4층 도서자료실 410.4-20-4=2  
숫자에 약한 사람들을 위한 우아한 생존 매뉴얼 | 존 앨런 파울로스  
4층 도서자료실 410-8-44=2  
새빨간 거짓말, 통계 | 대럴 허프  
4층 도서자료실 310.1-4-6=2

자연과학 분야

## 세계사를 바꾼 전염병 13가지



이 책은 로마를 멸망하게 만든 안토니누스 역병과 14세기 중반 이래 300년 동안 유럽을 뒤흔든 대재앙 흑사병, 장이 세균에 감염되어 체내 수분이 모두 빠져나가 죽기 전까지 고통받는 콜레라 등 인류를 위협한 13가지 전염병의 역사를 다룬다. 전염병이 창궐했을 당시의 상황과 인류가 맞닥뜨린 문제를 극복해나가는 과정을 풍부한 문화사 설명과 함께 유쾌하게 설명한다. 또한, 전염병은 두려운 존재가 아닌, 인류가 함께 힘을 모은다면 반드시 이겨낼 수 있는 '질병'임을 상기시켜준다.

제니퍼 라이트 지음 | 이규원 옮김 | 산처럼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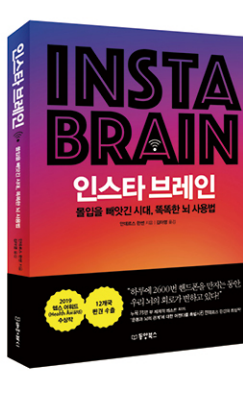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513.97-20-1=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언컨택트 | 김용섭  
4층 도서자료실 331.5414-20-2=2  
인류를 구한 12가지 이야기 | 정승규  
4층 도서자료실 518.09-19-2  
총, 군, 쇠 | 재레드 다이아몬드  
4층 도서자료실 389-13-5=2

자연과학 분야

## 인스타 브레인



모든 것을 손안에서 해결하는 초간단 시대, 전 세계의 친구들과 소통할 수 있는 초연결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 그런데 왜 기억력과 집중력은 점점 떨어지고 불안하고 외로운 걸까? 스마트폰과 SNS 사용 시간이 늘어날수록 뇌와 몸에 어떤 변화가 생기는지를 심층 분석하고 그 대안을 제시하는 책이다. 일상생활에서 어떤 방식으로 디지털 디톡스를 해야 할지를 이해하기 쉽게 설명함과 동시에 점점 가속화되어가는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적응하며 살아야 할 것인지 질문을 던지는 책이다.

안데르스 한센 지음 | 김아영 옮김 | 동양북스 | 202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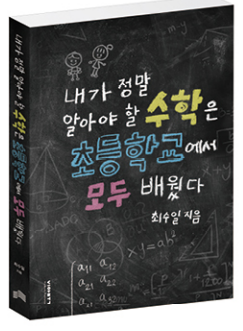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511.1813-20-14=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두뇌 혁명 30일 | 리차드 카모나  
4층 도서자료실 511.1813-14-13=2  
뇌 이야기 | 딘 버넷  
4층 도서자료실 511.1813-18-17=2  
나를 속이는 뇌, 뇌를 속이는 나 | 로랑 코양  
4층 도서자료실 511.1813-19-16=2

자연과학 분야

## 내가 정말 알아야 할 수학은 초등학교에서 모두 배웠다



저자는 수학이 쓸모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수학의 필요성에 대해 알려주기 위해 이 책을 썼다. 삶은 숫자, 수학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전화번호, 비밀번호, 주민번호, 차량 번호판 등도 모두 숫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외 여행지의 시차가 궁금할 때도 수학이 필요하다. 책에서는 초등학교 시절 우리가 배우는 수학의 개념들이 중·고등학교 수학으로 어떻게 이어지는지, 실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지 이야기한다.

최수일 지음 | 비아북 | 2020

국립중앙도서관 책꽂이  
410-20-17=2

+ 함께 읽으면 좋은 책

나는 수학으로 세상을 읽는다 | 톰 이스터웨이  
4층 도서자료실 410.4-20-3=2  
숫자가 만만해지는 책 | 브라이언 W. 커니핸  
4층 도서자료실 410.4-20-6=2  
수학으로 이루어진 세상 | 키스 데블린  
4층 도서자료실 410-3-3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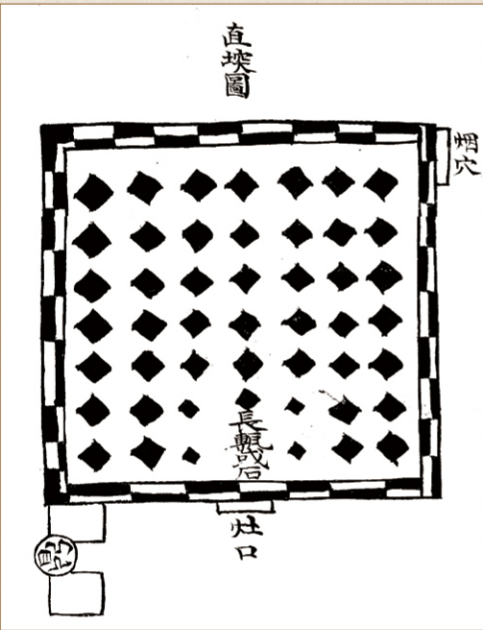


호기심 많은 조선시대 의관의 연구 노트

『소문사설(謏聞事說)』



『소문사설』에 소개된 '척각학(雙脚碓)'. '외다리 방아'로, 최소 세 사람이 필요한 우리 전통 방아와 달리 한 사람이 곡식을 찧을 수 있다.



직화식 온돌 직돌식(直塊式)의 평면도

『소문사설』의 저자 이시필

『소문사설』은 조선 숙종의 어의(御醫) 이시필(李時弼, 1657~1724)의 저작이다. 그는 1678년 의과에 합격하여 의관 노릇을 시작했다. 뛰어난 의술을 인정받아 어의의 자리에 올라 숙종의 건강을 관리했다. 경종 즉위 후에도 한동안 어의로 활동했으나, 1723년 제주도로 유배되어 이듬해 세상을 떠났다. 경종의 환후를 논의하는 자리에서 말을 잘못했다는 죄였지만, 실은 노론 측 인사들과 가까웠던 탓에 당시 정권을 잡은 소론의 미움을 샀기 때문이다. 이시필은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이었다. 그는 의원으로 네 차례 이상 사신단을 따라 중국을 여행했는데, 이 경험은 그의 안목을 크게 넓혔다. 그는 중국 사람들이 사용하는 편리한 도구와 그곳에서 먹어본 맛있는 음식을 전부 기록으로 남겼다. 업무로 지방에 파견되거나 심지어 유배되었을 때도 호기심을 잃지 않고 늘 새로운 것을 배우고 기록했다. 『소문사설』이라는 책 제목은 '생각이 고루하고 견문이 좁은 사람이 보고 들은 이야기를 기록하였다'는 뜻이다. 하지만 겸손한 제목과 달리 이 책에는 당시의 최신 지식과 기술에 대한 정보가 가득하

다. 이 책에 수록된 온돌 설치법, 도구 제작법, 음식 조리법 등은 지금도 재현 가능할 정도로 자세하다. 특히 중국과 일본, 우리나라 각 지방의 여러 가지 음식이 소개되어 주목을 받았지만, 『소문사설』은 단순한 요리책이 아니다. 이시필이 습득한 각종 신지식을 망라한 연구 노트이자 종합과학서다. 이시필은 원래 사람의 병을 치료하는 의관이다. 그가 어째서 건축과 기술, 음식 따위에 관심을 가진 것일까. 이시필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나라 사람은 성품이 게으르고 대충대충 하는 습속이 있다. 장인이 물건을 제작하는 데 있어서도 사물의 이치를 미루어 밝히거나 만들어내는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노력을 기울이지 않는다. 장인들은 겨우 모양이나 널 뿐이며, 물건을 만드는 방법은 방서(方書)라고 멸시하며 하려 들지 않으니 한탄스럽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사물의 원리를 파악하려는 생각을 하지 않고,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는 데도 소극적이라는 지적이다. 조선시대 지식인들은 철학과 역사, 문학에는 관심이 많았지만 과학 기술에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하지만 이시필은 반대였다. 모르는 것을 보면 그 원리를 알고 싶어 했다.



이시필은 실무를 담당하는 중인(中人) 계층으로서 현장에서 즉시 활용 가능한 실용적인 지식과 기술에 남다른 관심을 기울이고 기록으로 남겼다. 그 결과물이 바로 『소문사설』이다.

### 살림법의 지혜를 모아 정리한 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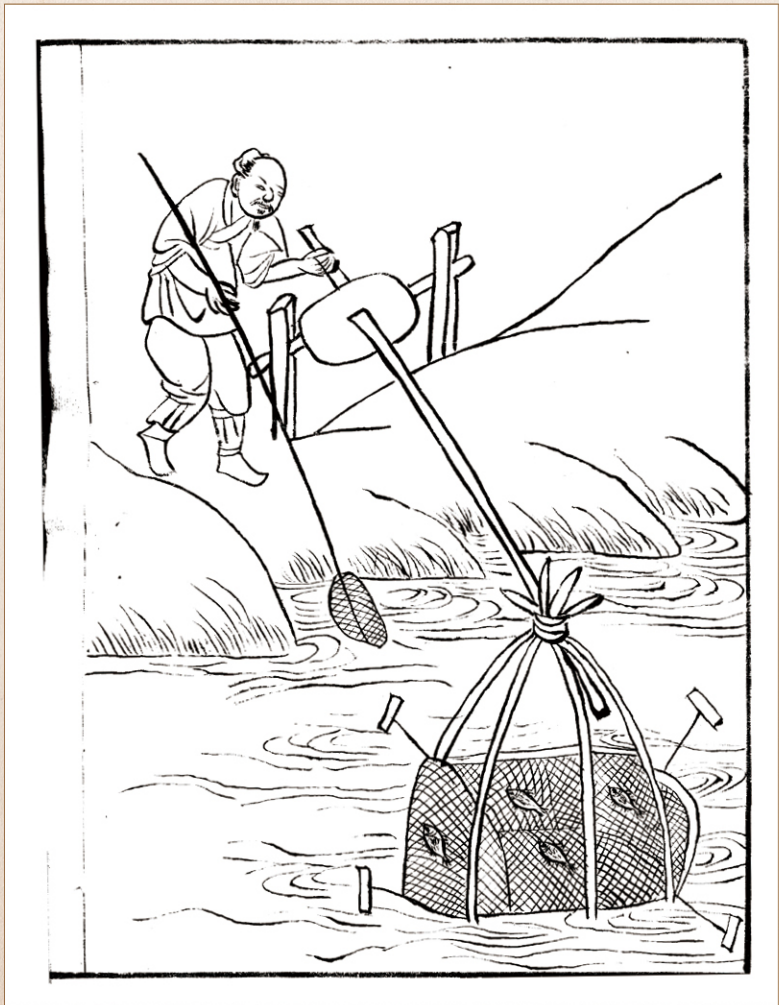
국립중앙도서관본 『소문사설』은 3부로 구성되어 있다. 1부는 온돌 공사법을 설명한 「전항식(甄炕式)」이다. 2부는 각종 도구의 제작법과 사용법을 소개한 「이기용편(利器用篇)」, 3부는 음식 조리법과 효능을 설명한 「식치방(食治方)」이다.

이 중 「전항식」은 본디 이이명(李頤命)의 저작인데, 이시필이 그 중요성을 간파하고 이 책에 옮겨 실은 것이다. 「전항식」은 벽돌을 이용한 온돌 설치법이다. 온돌은 우리나라의 전통 난방기술이지만, 주먹구구식으로 만들었기에 공사 기간도 오래 걸리고 열효율

도 좋지 않았다. 반면 중국의 온돌은 규격화된 벽돌로 만들었기에 단기간에 완성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틈새가 없어 열효율이 높았다. 약간의 맵감으로 밤새도록 방을 따뜻하게 만들 수 있었다.

이시필은 숙종의 병간호를 위해 대궐에서 밤을 새우는 연잉군(延礽君: 훗날의 영조)을 위해 벽돌식 온돌 설치법을 소개했다. 당시에는 대궐에도 온돌이 설치된 방이 별로 없었기 때문이다. 그림만 보면 어떤 구조인지 알 수 없지만, 설명을 함께 보면 이해가 된다. 벽돌만 있으면 초보자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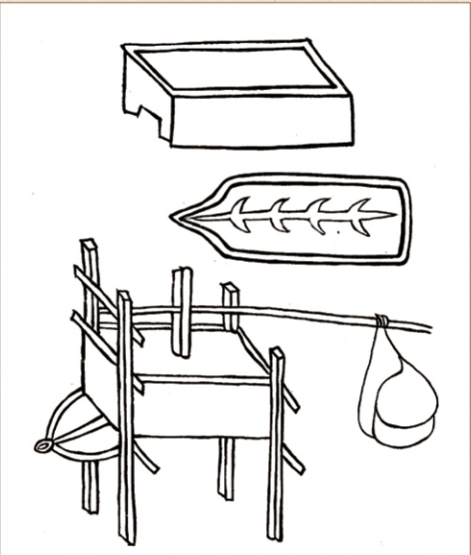
2부 「이기용편」은 이시필이 중국을 여행하며 직접 본 도구들을 소개한 것이다. 이시필은 중국에서 유용하게 쓰이는 도구들이 조선에서도 널리 쓰이기를 바랐다. 물고기 잡는 그물 '망어구(網魚具)'는 지금도 중국 남부 지역 및 동남아시아에서 사용되고 있으며, 용수철을 이용한 '포서기(捕鼠機)'라는 쥐덫은 지금 사용하는 사냥



물고기를 잡는 그물 '망어구(網魚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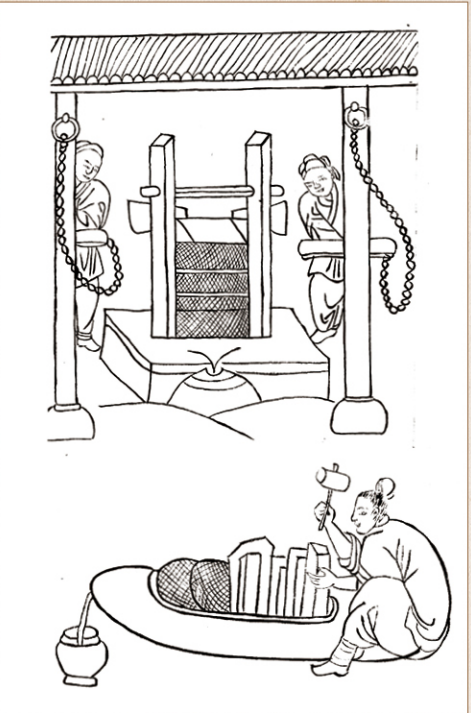
용수철을 이용한 쥐덫 '포서기(捕鼠機)'.



술을 거르는 틀 '주조(酒漚)'. 우리말로로는 '술주자'라고 한다.

용 닻과 비슷하다. 이 밖에 삽, 작두, 식칼, 거름망, 풀무, 착유기, 방직기, 연자방아, 외다리 방아, 외바퀴 수레 등 실생활에 유용한 도구가 가득하다. 지금 시골에서 볼 수 있는 도구도 있지만, 이시필 당시에는 쓰이지 않았던 모양이다.

3부 「식치방」은 음식 조리법이다. 어의였던 이시필이 음식 조리법에 관심을 보인 이유는 무엇일까. 대장금이 요리사이면서 의녀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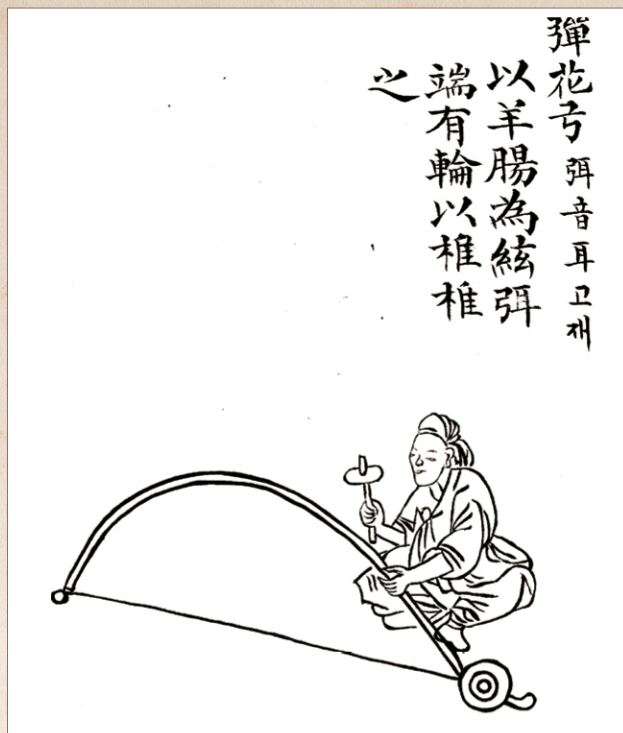
기름을 짜는 도구 '대착유기(大搾油機)'와 '소착유기(小搾油機)'.



1인용 외바퀴 수레 '독륜거(獨輪車)'.

다는 점이 힌트다. 옛날의 음식은 맛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효능이 중요했다. 음식은 맛을 느끼기 위한 것이 아니라 건강과 치료를 위한 것이었다. 특히 숙종은 말년에 병으로 입맛을 잃어 좀처럼 수라를 들지 않았다. 이시필은 궁중 요리사들을 시켜 그가 나라 안팎에서 직접 맛본 음식을 만들게 하여 숙종에게 올렸다. 숙종은 이시필 덕택에 대궐에 앉은 채로 당시 국내의 '맛집'의 음식





목화씨 빼는 도구 '탄화궁(彈花弓)'. 우리말로는 '씨야'라고 한다.

을 두루 맛보았다.

『식치방』에 실린 음식은 38종이다. 이 중 동아찜, 송이찜, 붕어찜, 메밀떡, 토란떡과 닭고기 만두, 굴 만두, 만두전골 등의 만두 요리는 이시필이 궁중 요리사 숙수 및 양반가의 요리 담당 노비에게 배운 것이다. 그들의 이름을 빠짐없이 기록해두었다. 마늘장아찌, 솜사탕, 분유, 새끼돼지찜, 호떡, 계란탕, 신선로, 연근녹말가루죽, 오이장아찌 등은 중국 음식이다. 이시필이 중국 가는 사신을 따라갈 때 먹어본 것이다. 가마보코와 서국미는 일본 음식인데, 일본 사람의 왕래가 잦은 동래에서 맛보았다. 개성 식혜와 순창 고추장 같은 지방 특산 음식도 빼놓지 않았다. 이시필은 이 음식들의 조리법과 함께 효능과 맛도 기록해두었다. 그는 한·중·일 3개국의 미식(美食)을 두루 맛본 '구르메(미식가)'였다.

#### 성장과 발전의 원동력 호기심

2014년 <SBS 스페셜>로 방송된 '이영애의 만찬' 프로그램을 제작할 때 자문을 맡은 적이 있다. 이 프로그램에서 이영애 씨가 『소문사설』을 살펴보는 모습을 촬영했다. 이영애 씨는 『소문사설』에 제법 흥미를 보였다. 한자를 잘 모른다고 겸손해하면서도 책에 실려 있는 그림들을 하나하나 주의 깊게 살펴봤다. 모르는 것이 있

면 거듭 물어보며 이해하려 애썼다. 그리고 이해한 것을 자신의 언어로 다시 풀어냈다. 그는 호기심이 왕성하고 이해력이 남달랐다. 『소문사설』의 저자 이시필 역시 호기심이 왕성한 사람이었다. 어의로서 부와 명예를 이미 얻었지만 새로운 정보, 실용적인 지식에 목말라했다. 새로운 것, 모르는 것을 보면 그 원리를 알아내려 애썼다. 자기 것으로 만들어 남에게 소개할 수 있을 정도로 완벽하게 이해했다. 결국 『소문사설』은 호기심의 산물이다. 누구나 어린 시절에는 호기심이 왕성하다. 하지만 그 호기심은 점차 세파에 시달리며 무뎈진다. 새로운 것을 보아도 무관심하거나 기껏해야 감탄에 그친다. 모르는 것을 보면 궁금해하기보다는 두려워한다. 이래서야 성장과 발전은 기대하기 어렵다. 나는 『소문사설』을 볼 때마다 어린이의 호기심을 잃지 않고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배우려 했던 조선시대 의관이 떠오른다. 그리고 호기심에 가득한 눈을 반짝이며 책을 넘겨보던 여배우의 모습도 함께 떠오른다.

장유승

단국대학교 동양학연구원 연구교수, 성균관대학교 한문학과, 한국학중앙연구원 한국학대학원을 거쳐 서울대학교 국어국문학과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쓰레기 고서들의 반란』, 『일일공부』, 번역서로 『현고기』, 『동국세시기』 등이 있다.



시공 여행

## 마음속에 그리는 그림

책은 글로 그린 그림과 같다.  
글자로 새겨진 한 장면 한 장면을  
상상하면 한 폭의 아름다운  
수채화보다 더 진한 감동의 빛깔로  
마음에 그려진다.  
가슴에 새긴 작품 안에서 삶을  
위로받고, 상처를 치유하며,  
더 아름답게 살아갈 힘을 얻는다.





### 다시 발견하는 아름다운 문장들

비가 내리는 동안 책 하나를 집어들었다. 황순원의 단편선이었다. 10여 년 전 분명 읽었던 책이지만 책장 어디에서도 찾을 수가 없었다. 다른 책을 읽을까 하다가 새로 주문을 했다. 학창시절 수업시간에 황순원의 <소나기>를 읽은 후 ‘배경 바꿔 쓰기’ 수업이 있었다. 스토리텔링 구조를 유지하면서 배경을 바꾸어 쓰는 수업이었다. 시대 배경은 현재, 공간 배경을 도심의 공원으로 바꾸었다. 지금 생각해보면 내가 제출한 과제는 조금 유치했었다. 그때를 포함하면 <소나기>는 세 번째 읽는 셈이었다.

*벌써 며칠째 소녀는 학교에서 돌아오는 길에 물장난이었다. 그런데 어제까지만 해도 개울 기슭에서 하더니 오늘은 징검다리 한가운데 앉아서 하고 있다.*  
- <소나기> 중에서

소년은 비켜달라는 말도 못 하고 멀찍이서 기다렸다. 누군가 징검다리를 건널 때야 소녀는 길을 비켰고 소년도 그제야 징검다리를 따라 건넜다. 이튿날도 소녀는 같은 자리에서 물장난을 하고 있었고 소년은 다시 기다렸다. 하지만 오늘은 누구도 징검다리를 건너지 않았다. 소녀는 소년이 기다리고 있는 것을 알고나 있는 것일까.

*그러다가 소녀가 물속에서 무엇을 하나 집어낸다. 하얀 조약돌이었다. 그리고는 흙 일어나 팔짝팔짝 징검다리를 뛰어 건너간다. 다 건너가더니 책 이리로 돌아서며, “이 바보.”*  
조약돌이 날아왔다.

‘다 건너가더니 책 이리로 돌아서며, / “이 바보.” / 조약돌이 날아왔다.’ 아, 이토록 간결할 수 있을까? 몇 번을 곱씹었다. 시의 한 구절이나 다름없었다.

소년은 소녀가 사라지면서 던진 조약돌을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주머니 속 조약돌을 만지는 버릇이 생겼다. 며칠이 지나고 개울가에서 소년과 소녀는 다시 마주쳤고 곧 말을 텃다.



01 소년과 소녀가 소나기를 피했던 수숫단. 그 속에는 푸르기만 한 풋풋함이 남아 있으리라.

02 문학관 전경을 감상하며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마타리꽃 사랑방’. 소설 <소나기>의 한 페이지가 적힌 조형물이 있다.

## 어딘가에는 있어야 할 사랑 양평 황순원 문학촌 소나기 마을

긴 장마였다. 모두 이런 비는 처음이라고 했다. 비 내리는 날을 좋아하는 나도 서서히 지쳐갔다. 그렇게 두 달 가까이 지났고 드디어 비가 멈췄다. 많은 상처를 남겼지만 시간은 또 그렇게 흘러갔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소녀가 걸음을 멈추며,  
“너 저 산 너머에 가본 일 있니?”  
별 끝을 가리켰다.

“없다.”  
“우리 가보지 않을래? 시골 오니까 혼자서 심심해 못 견디겠다.”  
“저래뵈두 멀다.”  
“멀은 얼마나 멀겠게? 서울 있을 땐 아주 먼 데까지 소풍 갔었다.”

베란다 너머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나는 형광펜으로  
자꾸만 밑줄을 긋고 있었다.

### 수숫단 속에 숨은 따뜻한 사랑

양평 ‘황순원문학촌 소나기마을’은 황순원의 문학관이다. 하지만  
‘문학관’이라는 딱딱한 이름을 버리고 ‘문학촌’과 ‘마을’이라는 친  
근한 이름을 가져왔다. 덕분에 여행자들의 발길이 밀려들었고 가  
장 성공적인 문학관으로 자리 잡았다.  
첫 번째 전시실에 들어섰다. 정면에 그가 생전에 사용하던 서재가  
그대로 재현되어 있었다. 책장, 탁자, 조명, 액자, 스탠드 옷걸이 등  
은 실제 그가 사용하던 것들이다. 그의 문장처럼 간결한 서재였다.  
전시실에는 그의 서재뿐 아니라 그의 유품들도 전시되어 있었다.  
금속 줄의 오메가와 세이코 시계, 그리고 여러 개의 필기도구. 이  
또한 20년 전 그가 세상을 떠나기 전까지 사용하던 물건들이다.  
그리고 발견한 육필 원고. 갱지나 다름없는 누런 200자 원고지에

볼펜으로 눌러쓴 원고는 〈신들의 주사위〉와 〈말과 삶과 자유〉였  
다. 〈신들의 주사위〉는 첫 연재부터 약 4년 만에 완성한 장편소설  
이다. 대지주인 두식영감과 아들인 한영아버지, 그리고 손자인 한  
영과 한수 등 3대에 걸친 한 가족의 기구한 삶을 담았다. 황순원의  
후기 작품이다. 〈말과 삶과 자유〉는 산문이다. 1985년 〈문학과  
지성〉에 처음 글을 발표한 이후 〈현대문학〉에 1988년까지 다섯  
번을 더 발표했다. 황순원의 가장 마지막 글이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 전시실은 그의 작품연보를 살펴볼 수 있는 전시실이다.  
〈소나기〉를 비롯해 그의 대표작이라고 할 수 있는 〈별〉, 〈독 짓는  
늙은이〉, 〈목님이 마을의 개〉, 〈카인의 후예〉 등의 작품들에 등장  
하는 주인공과 배경 등을 상세히 설명하고 있다.  
그리고 환한 창가에 마련된 ‘마타리꽃 사랑방’은 문학촌 전경을 감  
상하며 오디오북을 들을 수 있는 휴식 공간인데, 〈소나기〉를 읽었  
다면 감흥이 남다를 수밖에 없는 공간이다.

“이게 들국화, 이게 싸리꽃, 이게 도라지꽃…….”  
“도라지꽃이 이렇게 예쁜 줄은 몰랐네. 난 보랏빛이 좋아! ……근  
데 이 양산같이 생긴 노란 꽃이 뭐지?”  
“마타리꽃.”  
소녀는 마타리꽃을 양산 받듯이 해보인다.

그날 소년과 소녀는 소나기를 만났다. 처음에는 원두막에서 ‘비를  
그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원두막은 기둥이 기울고 지붕도 갈



래갈래 찢어져 있었다. 비가 덜 새는 곳에 소녀를 앉혔지만 소녀의  
입술은 파랗게 질려 있었고 어깨를 자꾸만 떨었다.  
문학관 밖으로 나왔다. 넓은 마당의 잔디는 그토록 초록이 짙었고  
분수는 사방을 향해 힘껏 물을 뿜고 있었다. 건물 측면에는 묘비  
하나가 서 있었다. ‘황순원 양정길’. 작가와 아내의 이름이었다. 본  
래 황순원의 묘는 천안의 한 공원묘원에 안치되어 있었는데, 문학  
관이 건립된 후 2009년 이곳으로 이장했다. 그리고 2014년 아내  
인 양정길 여사도 99세의 나이로 세상을 떠난 후 이곳에 함께 합  
장했다. ‘순수와 절제의 극을 이룬 작가’, ‘일생을 아름답게 내조한  
부인’, 묘비에는 그렇게 적혀 있었다.  
계단을 내려와서 잔디를 밟았다. 잔디밭 기슭에 여러 개의 수숫단  
이 움막처럼 쌓여 있었다.

세워놓은 수숫단 속을 비집어보더니 옆의 수숫단을 날라다 덧세  
운다. 다시 속을 비집어본다. 그리고 소녀 쪽을 향해 손짓을 한다.

수숫단 속에서 겨우 비는 피했지만, 이후 소녀는 병들었고 오래도  
록 보지 못했다. 그리고 어느 날 어른들의 이야기를 들었다. ‘내일  
소녀네가 양평읍으로 이사 간다는 것’이었다. 소년은 저도 모르게  
주머니 속 호두알을 만지작거렸다. 지난밤, 덕쇠 할아버지네 호두  
밭에서 몰래 따온 호두였다. ‘열이를 달이 지우는 그늘만 골라 줘  
으며’ 돌아오는 길, 어서 소녀에게 맛보이고 싶은 생각만 했었다.

“……그런데 참 이번 기집에는 어린 것이 여간 잔망스럽지가 않  
어. 글썸 죽기 전에 이런 말을 했는지 않아? 자기가 죽거든 자기 입  
던 옷을 꼭 그대로 입혀서 묻어달라구…….”

소설의 마지막 문장이다. 소녀가 마지막에 입었던 옷은 분명 소년  
과 소나기를 맞은 날 입은 옷일 테지. 불어난 개울을 건너기 위해  
소년은 소녀를 업었고 그때 소녀의 옷 앞자락에는 지워지지 않는  
검붉은 진흙물이 들었다. 소년의 등에 묻어 있던 진흙이었다.



03 소나기 분수가 뿜어져 나오는  
소나기마을 전경. 원두막과 수숫단이  
모여 있는 소나기 광장에는 매시  
정각 소나기가 내린다.  
04 황순원 작가가 사용하던  
유품들로 재현해놓은 서재.  
05 황순원 작가의 육필 원고  
06 작가가 사용하던 필기도구.  
07 단편 〈별〉에 등장하는 ‘누이’의  
모습을 형상화한 그림.



잔디밭에 세워진 수숫단을 다시 한번 바라보았다. 그 안을 헤집으  
면 속에서 소년과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이 세상  
어딘가에는 꼭 있어 주어야만 할 사랑. 소설 속이 아니라 세상 속  
에서 작은 씨앗처럼 발아해주어야 할 사랑. 수숫단 속에 꼭꼭 숨은  
뜻깊은 사랑.

### 단편소설 〈소나기〉

1953년〈신문학〉지에 발표한 단편소설이다. 단편 황순원의 최고 대  
표작이며 사춘기 소년 소녀의 따뜻한 감성을 탁월한 문체로 담아냈  
다. 영화, 드라마, 뮤지컬 등으로 여러 차례 재탄생했으며 1956년 영  
문으로 번역되어 서방 세계에 소개됐다.

### 황순원(1915.3-2000.9)

평안남도 대동군에서 맏아들로 태어났다. 1934년 평양 숭실중학교  
를 졸업한 후 일본으로 건너가 도쿄의 와세다 제2고등학교에 진학했  
다. 1939년 와세다대학 영문과를 졸업했다. 1930년부터 동요와 시  
를 신문에 발표했다. 초창기에는 주로 시를 썼으나 1940년 첫 단편  
집 〈늬름〉을 발표하면서 소설에 전념했다. 대표작으로는 〈별〉, 〈목님이  
마을의 개〉, 〈그늘〉, 〈기러기〉, 〈독 짓는 늙은이〉, 〈소나기〉 등의 단편  
과 〈카인의 후예〉, 〈나무들 비탈에 서다〉, 〈일월〉 등의 장편이 있다.  
간결하고 세련된 문체와 시적인 서정성으로 자신만의 작품세계를  
구축했다.

여행 작가 박동식(jayuin66@hanmail.net)  
카메라를 들고 길을 떠나는 유목여행자이며, 글과 사진을 통해 세상과 소통하길  
원하는 작가이다. <오늘부터 여행작가>, <Just go 대한민국>, <내 삶에 비겁하지  
않기>, <여행자의 편지>, <열병>, <마지막 여행> 등의 저서가 있다.



# 머물수록 깊어지는 사색의 공간 청주금빛도서관



01 2층과 3층을 연결하는 독서 계단.  
쿠션과 빈백 소파를 비치해 편안한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했다.

02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로 건립된  
청주금빛도서관 전경.



사금이 반짝이는 개울,  
금천(金川)이 낳은 이름인  
금빛. 긴 세월을 가로질러  
금보다 환한 지식의 빛으로  
시민의 삶을 밝히고 있는  
청주금빛도서관을 찾았다.

## 청주시의 13번째 공공도서관

상당산성으로 이어지는 낙가산, 갯대산 자락과 마주한 청주금빛 도서관. 청주시의 13번째 공공도서관으로 지난 8월 28일 개관 1 주년을 맞았다. 한창 의욕적으로 운영해나가야 할 시기에 코로나 19라는 암초에 걸려 오랜 휴지기를 갖긴 했지만, 지난 1년은 금빛 도서관에도, 지역주민에게도 뜻깊은 시간이었다. 도서관 주변에 10개의 초중고교가 밀집해 있어 학령인구 비율이 높고, 또 인근 12개 아파트 단지 8000여 세대 거주자들의 평균 연령 또한 매우 젊은 편. 덕분에 청소년 특성화 도서관이란 역할을 특히 해내며 13개 공공도서관 중 높은 이용률을 기록 중이다.

금빛도서관 장소영 주무관에게 개관 1주년 소감을 묻자 “이제 시작하는 기분”이라고 운을 뗐다. “도서관이 지역주민과 맞춰가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해요. 빠른 성과를 올리려 하기보다 정책, 서비스, 시설 등에 대한 이용자 의견을 경청하며 부족한 점을 보완하는 데 중점을 뒀던 1년이었습니다.” 겨우 시작일 뿐이라며 몸을 낮췄지만, 약 12만 명의 이용자, 16만 여 권의 대출도서관 이용통계가 말해주듯 쾌조의 출발이라 불러도 손색이 없다. 5월 재개관에 이어 지난 6월 2차 확대 개관에 나서면서 도서관 이용 정상화만 기다렸던 이용자들의 방문은 점점 늘는 추세다.





- 03 원목과 쿠션을 활용해 안전하고 편안한 공간으로 꾸민 1층 어린이 자료실.
- 04 3층 종합자료실 2에 마련된 열람석에는 USB단자, 콘센트 등 각종 편의시설이 완비되어 있다.
- 05 '월간 사서 Pick'은 사서가 직접 고르고 꾸미는 북큐레이션으로 지난겨울부터 실시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 06 장애인과 노년층 이용자를 위한 점자 도서와 큰활자 도서 코너를 별도로 운영 중이다.
- 07 청소년 이용자가 즐겨 찾는 공간인 음악감상존.
- 08 3층 종합자료실 2 내에 마련된 VOD 존과 VR 체험실.



### 청소년 특성화에 맞춘 다채로운 시설

금천동 호미골 체육공원 내 위치한 금빛도서관은 연면적 4053㎡, 지하 1층과 지상 3층 규모로 청주시에서 129억 원을 투입해 완공했다. 장서 수는 4만4710권으로 대형 도서관과 비교하면 많은 편은 아니지만, 청소년 특성화 도서관에 걸맞게 차별화된 공간과 프로그램을 제공해나가고 있다. 실제 청소년 이용자들의 반응이 금금했다.

“연령별 대출자 현황을 보면 10대 전후 연령의 대출 비율이 매우 높은 편이에요. 설계 당시부터 전용 공간인 청소년자료실을 별도로 마련해 또래끼리 자연스럽게 책을 매개로 어울릴 수 있도록 배려했고요. VOD 서비스, 음악감상존 같은 시설도 인기가 좋죠.”

다만 VR 체험, 전자책 열람 코너 등 특화 서비스는 현재 사회적 거리두기 차원에서 일부 기능만 이용할 수 있지만 언제든 재개할 준비를 마쳐둔 상태다.

청소년과 함께 30~40대 역시 금빛도서관의 주된 이용자층이다. 대출도서의 약 60%가 어린이 대상 도서일 정도로 미취학 아동을 포함한 저학년 어린이를 자녀로 둔 세대가 도서관 활성화를 이끌어가는 중심축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다. 이용자 범위를 금천동과 용담·명암·산성동까지 넓히면 주변 대단위 아파트 단지 8000여 세대를 포함해 총 1만6853세대(2019년 기준)까지 아우르고 있으니 복합문화센터의 기능을 겸한 금빛도서관의 등장은 지역주민들로서도 반가운 호재였을 것이다.

### 사서가 직접 고르고 꾸미는 ‘월간 사서 Pick’

금빛도서관은 설계부터 지역주민과의 소통과 휴식에 주안점을 두고 공간조성에 신경을 썼다. 실내 장식에서 원목과 우드 패턴을 주로 사용했는데, 자연미를 살리고 편안함과 안정감을 확보하기 위한 고민의 결과다.

특히 1층에 마련된 어린이자료실은 아늑하고 차분한 느낌의 조명과 곳곳에 쿠션을 설치하는 등 아이들의 독서 활동에 맞춰 최대한 배려했다. 주 이용층을 고려한 낮은 키의 서재와 통나무집을 본뜬 독서공간 등 구석구석 아이들을 유혹하는 포인트가 흥미를 자극한다. 어린이자료실과 함께 1층을 차지하고 있는 커뮤니티 홀과 공연장은 하반기 문화 프로그램이 재개되면 다시 지역주민들의 웃음소리가 그간의 긴 공백을 메울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종합자료실 1과 정기간행물실, 청소년자료실이 조성된 2층에서 가장 먼저 눈에 띄는 것은 북큐레이션인 ‘월간 사서 Pick’ 코너. 매월 한 가지 주제를 정해 약 50권의 분야별 도서를 사서가 직접 선정해 소개하는 공간으로 작년 겨울부터 시작한 이래 좋은 반응을 이어가는 중이다.

“단순히 신간이나 베스트셀러 위주가 아니라 사서가 직접 주제와 도서를 선정해서 소개하는 코너예요. 계절과 각종 이슈에 맞춰 이용자들의 지적 호기심을 자극할 주제로 꾸며지기 때문에 활발한 도서대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 누워서도 독서할 수 있는 자유 공간

2층과 3층을 잇는 독서 계단도 지역주민의 사랑을 듬뿍 받는 공간. 단과 단 사이의 공간이 널찍하고 여유로운 계단마다 쿠션과 빈백 소파를 배치해 마음껏 자유로운 자세로 독서를 즐길 수 있도록

설계됐다. 아직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경계를 늦출 수 없기에 이용을 제한 중이지만 방역 상황을 예의 주시하며 조금씩 완화해나갈 방침이다.

계단과 이어진 3층은 역사, 문학 서적이 자리한 종합자료실 2와 연결된다. 채광 좋은 창가의 전망형 열람석부터 종합자료실 중앙에 꾸며놓은 다인석 테이블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형태의 열람 공간을 조성해놓았으며, PC 이용과 VOD 존, 다목적실이 이곳 3층에 마련되어 있다.

이날 열람석을 채운 이용자 대부분은 청소년층. 방학을 맞아 평소보다 더 자주 찾고 있다는 학생은 “모든 열람석에 조명과 충전용 콘센트 같은 편의시설이 갖춰져 있고 깨끗하고 쾌적한 환경 속에서 열람할 수 있어서 좋다”고 만족감을 나타냈다.

금빛도서관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에 따라 집에서도 안심하고 즐길 수 있는 비대면 독서문화 프로그램을 제공할 계획이다. 인문학, 취미 관련 일일특강 등 다양한 온라인 강좌를 준비 중이며, 9월 시범운영 후 이용자의 피드백을 수렴해 문제점을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먼 옛날, 개울 가득 반짝이는 사금을 품고 황금빛 풍요를 안겨줬던 금천. 청주금빛도서관에서 발원한 지식의 샘이 머지않아 지혜의 강물을 이루기를 기대해본다.

이용시간 월~목 09:00~22:00(종합자료실1,2), 09:00~18:00(어린이자료실), 토~일 09:00~18:00  
 휴관일 매주 금요일 및 공휴일(현재 코로나19로 임시휴관 중)  
 주소 충북 청주시 상당구 호미로 272(문의 043-201-413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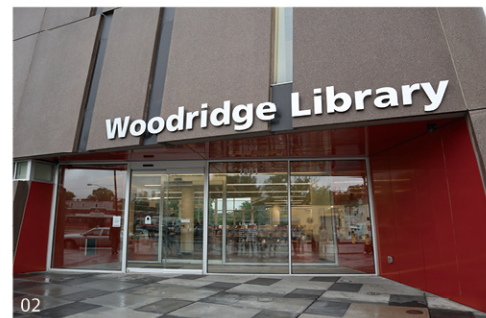


## 책, 사람, 자연이 공존하는 우드리지 네이버후드 도서관



01 '열린 공간' 컨셉트로 도서관 중앙이  
오픈되어 있어 개방적인 1층.

02 모던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우드리지  
네이버후드 도서관 외관



워싱턴 D.C. 북동쪽에 있는  
우드리지(Woodridge)는  
나무가 우거지고, 언덕이 많은  
산등성이의 이름을 따서 명명된  
마을로 16년 동안 'Tree City  
USA'<sup>1</sup>에 선정됐다. 자연과  
함께하는 '우드리지 네이버후드  
도서관'을 만나보자.

### 야외 공간을 활용한 도서관

랭던공원(Langdon Park) 옆 우드리지 네이버후드 도서관  
(Woodridge Neighborhood Library)은 열린 공간(Open  
Space)<sup>2</sup> 컨셉트 도서관으로, 유리로 둘러진 개구부 덕분에 낮에는  
주변의 나무와 채광으로 초록빛이 가득하며, 밤에는 도서관의 불  
빛이 밝혀져 공원 언덕의 등대처럼 전망을 자랑하고 있다.  
워싱턴 D.C. 최초로 야외 공간을 활용한 공공도서관으로 자연  
에서 책을 읽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캐나다 건축가 빙 톰(Bing  
Thom)이 디자인한 도서관으로, 1958년에 지어진 건물을 2012  
년에 철거해 4여 년 동안 지역사회에 기반을 뒤 2016년 9월 28

일 개관했다. DC Public Library(이하 DCPL)의 표준 건축 프로그  
램과 우드리지의 건축 및 도시공학을 전공한 고등학생, 대학생이  
참여해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하고 사회 공헌의 기회가 됐다.  
우드리지공공도서관의 분관인 네이버후드 도서관에 발을 들이는  
순간, 유리 온실에 들어온 느낌을 준다. 시선을 방해하지 않는 낮  
은 서가와 개구부 덕분에 도서관 밖 공원의 모습을 시원하게 볼 수

<sup>1</sup> 'Tree City USA'는 1976년부터 미국의 도시와 마을을 녹색으로 만들기 위해 지역 주민이 함께  
나무를 관리하고, 확장하는 전국적인 운동으로 3400개 이상의 지역에서 참여한다.

<sup>2</sup> 'Open Space'는 공기, 물, 개방감을 확보해 용수의 공급, 야생동물의 보호 등으로 물적 자원을  
증가시키며, 그린벨트, 공원, 녹지 등의 복합 기능과 공기정화로 순환 통로 기능을 한다.



있다. 또한 일조량에 따라 낮낮이가 변하는 전등으로 언제나 밝은 공간이 유지된다. 1층에서 3층의 천장까지 전체 층이 연결되며, 아래층의 소리가 위층으로 올라오는 구조로 건축되어 있다. 도서관 중앙에 위치한 계단은 1, 2층을 연결하며, 계단을 활용한 좌석은 도서관을 개방적이고 편안한 공간으로 만들어준다. 도서관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3층의 ‘독서 라운지’는 전면을 유리로 둘러 자연광이 도서관 안에 깊숙이 들어와 온기를 전해주고 있다. 야외 공간인 ‘옥외 테라스’는 일본에서 개발한 레인 체인(Rain Chain)<sup>3</sup>을 도입해 정원을 만들었다. 자연과 공존하고자 하는 우드리지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도서관임을 느낄 수 있다.

### 한국어 등 20개국 통역 서비스

도서관과 이용자의 첫 단추는 소통이라고 생각한다. 우드리지 네이버후드 도서관은 공간 구성과 디자인에서부터 이용자와의 소통을 보여준다. 도서관 입구에 위치한 사서 데스크는 도서관을 찾아온 목적에 따른 안내를 제공하며, 사서와의 소통으로 환영받는 기분을 준다. 한국어를 포함한 20개국의 언어 통역 서비스를 DCPL 차원에서 제공하고 있으며, 스페인어, 영어, 중국어, 프랑스어로 진행되는 스토리텔링은 언어에 대한 어려움 없이 누구에게나 도

<sup>3</sup> 빗물을 빗 사슬을 통해 옥상 배수소에서 분배하는 친환경 기법.

서관이 열려 있음을 인지할 수 있다. 지역 주민의 의견을 반영해 모든 연령대를 수용하는 열린 공간에 중점을 두었다. 접근성이 좋은 1층은 신착도서와 다양한 북큐레이션으로 책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도서관을 둘러볼 수 있도록 이끌어준다. 어린이 프로그램인 ‘레고 클럽(LEGO Club)’의 결과물을 서가 위에 전시해 프로그램에 대한 관심을 유도하며, 자연스럽게 어린이자료실을 만나게 한다. 종이를 씌운 책상 위에는 크레파스와 놀이카드가 놓여 있어 책을 읽으며 자유롭게 생각을 표현할 수 있다. 어린이들을 위한 알록달록 원색 가구와 야외로 이어진 정원은 공간에 대한 호기심을 불러일으킨다.



03 랜던공원과 도서관 내부, 외부 전체를 내려다볼 수 있는 3층의 독서 라운지.

04 어린이와 유모차의 동선을 고려한 어린이자료실의 공간 배치.

05 도서관 속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야외 테라스의 정원.

06 청소년 자원봉사자와 키워드를 선정한 북큐레이션과 청소년 전용 공간.

07 어린이 담당 사서가 진행하며 국적에 상관없이 모두가 참여하는 스토리텔링 강연.

08 종이를 씌운 책상 위에 자유롭게 그릴 수 있는 크레파스와 놀이카드가 있는 어린이자료실.



청소년과 성인을 위한 2층에서는 회의실과 공부방(예약제)을 이용할 수 있으며, 별도의 출입구가 있어 도서관 운영 시간 외에도 다양한 모임과 동아리 활동을 지원하는 등 도서관에서 지역사회의 중심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40여 대의 컴퓨터를 제공하고 있으며, 청소년을 위한 공간인 ‘Teen Space’에는 10대가 좋아하는 브랜드인 애플 컴퓨터와 디지털 기기를 제공하고 있다. 각자의 개성과 성향을 존중해 다양한 형태의 의자를 배치했으며, 독서를 좋아하지 않더라도 DVD, 음악 CD 등 다양한 디지털 콘텐츠를 이용해 도서관과 친해질 기회를 제공한다.

### 책과 이웃을 연결하는 사람들

책과 사람, 사람과 사람이 만나는 공간으로 도서관의 가치는 변화하고 있다. DCPL의 600여 명의 직원은 순환근무를 하며, 사서는 이용자의 나이에 따라 업무가 분장된다. 유아(0~6세), 어린이(7~13세), 청소년(14~23세), 성인으로 업무를 나누어 도서 및 교육, 행사 등 전 분야를 분담한다. 각 연령대에 맞는 전문성을 가지고, 지역사회 교류와 지식정보를 제공해 이용자에게 다가가려고 노력하고 있다. 현장과 밀접한 사서는 이용자 입장에서 생각할 수 있으며, 이용자와 소통하는 도서관을 만들어갈 수 있다. 우드리지 네이버후드 도서관에는 사서를 포함한 40여 명의 직원이 근무한다. 연말에는 사서들이 모여 토론회 및 세미나를 진행하며, 소통의 장이 이루어진다. 연 2~5회 DCPL 중앙도서관인 마틴 루터 킹 주니어 기념도서관(Dr. Martin Luther King Jr. Library)에서 전체 사서와의 만남을 가지며, 연 1~2회는 같은 업무별로 직원

끼리 모여 정보를 공유하고 역량을 강화한다. 사서는 책과 도서관에 관련된 업무 외에 지역사회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조사해 전문성을 가지며, 그에 따른 자부심도 느끼고 있다. 도서관 2층에 위치한 ‘Friends of Library’는 청소년과 성인 자원봉사자를 위한 공간이며, 주 업무는 도서관의 기증 도서 및 기부 물품을 선별, 관리하고 기증 도서의 일부를 판매해 그 수익은 도서관 운영에 사용하고 있다. 또한 매년 아르바이트 형태로 청소년을 모집해 도서관 업무 경험의 기회를 제공한다. 사서와 자원봉사자가 함께 프로그램을 편성하기도 하며 북큐레이션, 도서관 홍보 등 지역사회에 참여하는 기회가 제공된다. 그 밖에 비영리 단체와 연계하여 재능기부 형태의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지역 주민에게 다양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한다.

### 유적지 자전거 탐방 프로그램

전통적인 도서관의 역할에 더해 이제는 일상에서 느꼈던 어려움과 각종 정보 접근의 도움을 제공해 우드리지 주민들은 도서관을 그 이상의 공간으로 생각하고 이용하고 있다. 자전거를 타고 지역의 역사 유적을 탐방하는 ‘Know Your Neighborhood’, 힙합을 기반으로 한 지역사회 활동 ‘Hip-Hop’, 애니메이션 동아리 ‘Woodridge Anime’ 등 지역의 색깔을 담은 도서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누구나 자신 삶의 책장을 채워 나갈 수 있도록 200여 명의 후원자와 지역의 여러 기관을 지원, 협력하는 역할을 한다. 오늘도 우드리지 네이버후드 도서관은 불빛이 환하게 밝혀져 있다.





# 전통의 변주 우리 것의 쇠퇴 혹은 찬사

120여 년 전, 근대의 물결이 몰려올 때 조선의 것들은 강압에 의해, 혹은 이국적이고 새로운 것들에 의해 그 영토가 점점 축소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현실에서 조선의 미감을 보여주는 기표는 쇠퇴와 굴종의 상징이 되기도 했지만, 한편으로는 이걸 고수하면서 경외와 사랑, 혹은 찬사를 바친 흔적도 뚜렷하다. 어찌 보면 미학적 쾌감과는 동떨어진 ‘우리의 것’에 대한 당위성과 책임감, 죄책감과 의 복합적 산물일지도 모를 일이다. 근대기의 책 표지 속에서, 우리에게는 이제 전통으로 굳어버린, 조선적인 것들은 다양한 시각적 재현뿐 아니라 물질적 복구로 호명됐다.



『두껍전』(박문서관, 1926)



『조선창극사』(조선일보사, 1940)



『증수연예옥중가인』(경성서적조합, 1926)



전통적 미감을 도입한 ‘을유문화사’의 책 표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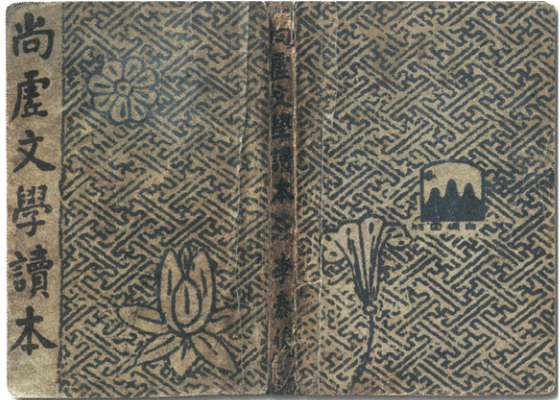
## 구체적 형상의 재현

고소설 딱지본의 표지는 조선 서적에 등장하던 삽화 양식에 채색을 입힌 것이 많은데, 주로 기와집, 한복, 소나무, 구름, 학, 달, 능수버들, 말과 장수 등 구체적인 표상으로 채워져 있다. 이 중에서도 내용의 극적인 장면을 묘사한 삽화류 표지와 달리 산수화나 민화풍의 딱지본 중에는 수준 높은 완성도와 섬세함을 보이는 것들이 많으며, 전문 화공들이 그린 것임을 입증하는 낙관이 찍혀 있다. 이 중 관재 이도영 장정, 춘향전 『옥중가인』의 표지를 잠시 보자. 이도영은 1909년 대한민국에 조선 최초로 풍자만화를 게재한 화가이자 만화가였다. 화조도의 한 부분을 클로즈업한 듯한 화면, 전통 서적 양식의 제호가 짙은 노랑 바탕 위에 배치되어 있다. 담백한 바탕에 그려졌던 조선의 화조도와는 뉘앙스가 다르다. 많은 고소설 딱지본 표지에서 조선의 것들은 새로운 석판 인쇄의 옷을 입고 한동안 인기를 누리다가 딱지본의 쇠퇴와 더불어 사라진다. 『두껍전』의 소나무, 구름, 달 역시 친근한 조선의 기표가 서구의 인쇄술을 빌려 잠시 등장한 예이다. 정현웅이 디자인한 『조선창극사』는 붉은색 바탕에 화려한 색깔의 봉황을 운동감 있게 배치했다. 붉은색이 책 표지 전체에 사용된 것은 드문 경우이며, 특히 붉은색은 곤룡포, 왕의 간찰에서나 사용되는 왕의 색이었다. 이런 관점으로 본다면 이 표지에서의 전면적인 붉은색은 특히 조선적인 것에 대한 일종의 경의로 다가왔을 지도 모를 일이다.

## 해방기의 발랄한 표현들

전통적 소재는 해방기에 더 자주 등장하는데, 억눌렸던 민족의식이 분출되면서 나와 우리의 공통적인 기반으로 전통을 호명했을 것이다. 특히 해방기 출판사들의 로고는 일제강점기에 비해 뚜렷한 분방함을 보여준다. 이 중 1945년에 설립된 을유문화사는 이름과 로고, 책 표지까지 일련의 이미지 아이덴티티 프로그램인 CIP(Corporate Identity Program)를 실시해 편집 전반에 전통적 미감을 도입했다. 이 중 베스트셀러이자





『상허문학독본』(백양당, 1946)



『수선사의 인지』



『시집구상』(청구출판사, 1951)



『박꽃』(백양당, 1947)



『육사시집』(범조사, 1956)



『춘향이 마음』(신구문화사, 1962)

스테디셀러였던 을유문고 시리즈는 기하학 도형의 경직성과 구름 문양의 운동감을 대조적으로 배치하여 경쾌한 리듬감을 보이고 있으며, 이후 비취색 바탕에 비천상이 들어간 장정은 긴 시간 한국 문고본의 얼굴 역할을 했다.

해방기 흥미로운 출판사였던 백양당은 작은 모던 양품점을 하던 배정국이 이태준, 김기림 등의 지식인, 서예가 손재형과 가깝게 지내면서 시작한 출판사이다. 국문학자 김윤식은 백양당의 표지 디자인을 기품 있는 고담한 선비 취향이며, 그 디자인이 문화 자본의 회로에 들어가면서 표지로 인해 판매 부수가 현격히 높아졌다는 해석을 하고 있다. 이태준의 『상허문학독본』에는 옥색 바탕의 앞, 뒤표지 전면의 와당문에 꽃 패턴이 감각적으로 배치됐고, 창문처럼 들어간 뒤표지 중앙의 로고는 수목화의 미감을 발산하고 있다. 재판 역시 민화책가도의 한 장면을 펜화로 재현했다.

여기서 잠깐 출판 디자인에서 한동안 유지됐던 인지를 들여다보자. 인지는 발행 부수와 인세를 해결하기 위해 판권 페이지에 붙이는 우표 크기의 종이였다. 이 중 시인 계몽묵과 백병원 원장 백인제가 창립한 수선사의 인지는 반쯤 열린 한옥의 빈 공간에 저자의 도장을 찍게끔 디자인했는데, 선비들의 멋과 공간감까지 보여주는 듯하며 그 크기 또한 책의 절반을 차지한다. 이 외에 정음사의 물고기 풍경, 백양당의 한지의 물성, 아문각의 인지에서조차 전통적 미감이 또렷하게 발산되면서 표지 디자인에서는 제한된 출판사의 일관된 정체성을 보여준다.



『두계잡필』(일조각, 1956)



『태평천하』(동지사, 1948)

### 전통의 합목적 호명

서울대 공예과 교수였던 이순석이 디자인한 『시집구상』의 표지는 백제의 산수문전에서 모티브를 얻은 듯하며, 제호는 공초 오상순이 썼다. 산과 구름, 꽃과 나무의 민화적 이상향, 녹색과 주황색의 대비, 5침 안정법에 의한 선장제본, 세로쓰기 등으로 전통적 표상의 재현뿐 아니라 물상의 복원까지 이루어낸 작품이다. 하지만 한국전쟁 중 피난지 대구에서 출간된 이런 완벽한 전통의 복원과 도가적 이상향이 사형당한 사제였던 형, 북에 두고 온 어머니에 대한 그리움으로 절절한 이 시집을 묶는 표상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 든다. 시인의 이 아픔은 당대를 같이한 한국인과 공유된 아픔이라는 점에서 문학은 단지 한 작가의 미학적 호오만을 담는 그릇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런 맥락에서 경험해보지 못한 것에 대한 동경으로 상상의 과거를 그리워하는 행위인 노스탤지어는 어긋난 현재를 만들어내기도 하는 '만들어진 전통', 허위의식이라는 지적을 받기도 한다. 북 디자인은 시각적 완결성이나 미학적 평가와는 또 다른 층위의 사고를 요하는 디자인 작업이다.

### 다시 일본식, 서구식 미감으로

전통적 미감들은 추상적 표현과 양식의 응용 등 다양하게 등장했다. 장욱진 작품인 이병도 수필집 『두계잡필』은 현대적 미감의 책가도이며, 박문원이 디자인한 『박꽃』에서는 고유섭이 조선의 맛으로 지칭한 “구수한 큰 맛”의 수사가 체감되는 듯하며, 기물들이 질서 없이 무심히 놓인 구도는 기명절지도(器皿折枝圖)의 미니멀적인 해석이기도 하다. 이 외에 김규택이 장정한 『태평천하』의 당혜와 남자의 비단신 등은 전통적 물상들이 현대적 기법으로 호명된 예이다. 장석수 화가의 『육사시집』, 서세옥 화백의 『춘향이 마음』은 조선 수묵화의 담백한 색채와 질감, 타이포그래피의 묘미를 보여주고 있다.

해방 공간에 등장한 이런 다양하고 발랄한 전통적인 것들은 1950년대 후반을 기점으로 점점 사라지면서 서구 추상화의 물결로 뒤덮인다. 또한 1970년대에는 일본으로 유학 갔던 디자이너들이 돌아와 한국의 산업화 시대의 디자인에 참여하면서 특히나 출판사의 로고들이 작은 지면에서 보여주던 전통적인 것들의 질감과 표상은 사라진다. 이후 특히 로고들은 일제강점기 조선의 모든 기업이 보여주던 일본식의 딱딱하고 정형화된 감각들이 기업 CIP의 대세를 만들기 시작했다.

### 조현신

현재 국민대학교 테크노디자인대학원에서 디자인 역사와 이론을 가르치고 있다. 우리의 일상에서 친근하고 낯익은 한국 디자인 역사를 연구하고 있으며, 특히 근대기에 형성된 한국적 정서의 디자인 표현에 관심이 많다. 저서로 <일상과 감각의 한국디자인 문화사>(글항아리, 2018)를 출간했다.

\* 모든 이미지는 저작권이 있으므로 자료의 무단복제 및 사용을 금합니다.



## 문화체육관광부, 2020년 공공도서관 통계 조사 결과 발표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한국문화관광연구원과 함께 ‘2020년(19년 기준)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공공도서관의 기반과 서비스가 꾸준히 개선되어 지식정보사회, 문화예술사회에 적절히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도서관 확충에 따라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 2019년 공공도서관 수 1134개관, 전년 대비 3.5% 증가

공공도서관 수는 2018년 1096개관에서 2019년 1134개관으로 38개관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전년 대비 3.5% 증가). 전국 인구 대비 공공도서관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는 4만5723명으로 전년 대비 봉사대상 인구수가 감소하여 이용객이 더욱 편안하고 쾌적하게 도서관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된 것으로 파악됐다.

### 경기도와 서울의 공공도서관 수가 가장 크게 증가

지역별로 공공도서관 수를 살펴보면, 경기 277개관, 서울 180개관, 경남 72개관, 전남 70개관, 경북 66개관, 충남 63개관 순으로 나타났다. 2018년과 비교할 때 경기 13개관, 서울 7개관이 증가하여 수도권의 도서관 확충이 다른 지역에 비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1관당 봉사대상 인구수를 볼 때 여전히 수도권과 광역시의 공공도서관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 2019년 공공도서관 직원 수 1만7558명, 1관당 직원 수 0.4명 증가

공공도서관의 직원 수는 1만7558명으로 2018년에 비해 982명 증가했다. 1관당 직원 수는 15.5명으로 2018년 대비 0.4명 증가한 것이다. 한편, 공공도서관의 1관당 사서직(정규직+비정규직) 수는 6794명으로 변동이 없었다.

문체부 정책 담당자는 “이번 통계조사 결과를 도서관 정책 개발과 도서관 동향 및 현안에 대한 보고서 제작 등에 활용해 도서관 통계의 중요성을 환기하고 활용도를 높일 계획이다. 특히 아직 코로나19가 안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 방식을 통한 국민들의 독서환경 서비스 요구가 계속 증가할 것으로 보여 공공도서관이 변화에 발맞춘 선제적인 대응 방안을 마련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 ‘공공도서관 통계조사’ 결과는 국가도서관통계시스템(<http://www.libsta.go.kr>)에서 찾아볼 수 있다.

## 국립중앙도서관, 일제강점기 아동과 여성 강제동원 관련 자료 공개

국립중앙도서관, 국가기록원, 동북아역사재단은 8월 13일 그동안 제대로 규명되지 않았던 일제강점기 아동과 여성 강제동원 관련 자료 공개와 공동포럼을 개최했다.

이번에 공개된 자료들은 아동과 여성들의 강제동원 실태를 실증하는 학적부와 명부, 그리고 전쟁동원을 정당화하고 선동하기 위한 신문기사와 문헌 등이 포함되어 있다. 그동안 강제동원 문제는 군인, 군속, 노무자, 위안부 등에 집중했으나, 이번 공개를 계기로 아동과 여성을 대상으로 한 일제의 반인권적, 불법적 동원에 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활발한 논의가 촉발될 것으로 기대했다.

박양우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영상으로 전한 축하메시지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기록하는 과업의 진정한 가치는 진실을 보존하는 것이며, 역사를 인정하고, 있는 그대로를 기록하여 보존할 때 역사는 빛나는 유산이 될 것”이라며, “3개 기관이 모인 오늘 행사가 왜곡된 진실을 바로잡고, 거짓된 사실을 밝히는 등불이자 진실을 알리는 커다란 목소리로 울려 퍼질 것을 믿는다”라고 말했다. 3개 기관은 그동안 각 기관 차원에 머물렀던 일제강점기 강제동원에 대한 자료 분석, DB구축 등 관련 사업과 연구를 공동 추진한다고 밝혔다.

전시에 이어 열린 학술포럼은 서혜란 국립중앙도서관장의 개회사, 김도형 동북아역사재단 이사장의 기조강연, 주제발표, 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학술포럼에서는 일제의 아동과 여성 동원의 강제성과 불법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했다.

이번 전시는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http://www.nl.go.kr>)에서 온라인 전시로 공개한다.

문의:자료운영과 02-3483-8816





### 국립중앙도서관, 한·일 국립도서관장 화상회의 개최



국립중앙도서관은 7월 28일 일본국립국회도서관과 화상회의를 통해 코로나19에 따른 양국 도서관의 대응과 전망, 양국 도서관의 주요 정책 및 협력 사업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이번 회의를 통해 양국 도서관의 코로나19 대응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양국 모두 사전예약제를 통한 부분적 개관을 실시하고 있으며, 이용자 선정에 있어 일본은 추첨 방식을, 한국은 선착순 예약 방식을 채택하고 있었다. 우리나라 도서관의 대출자료 24시간 경과 후 재대출 방식을 소개하기도 했다. 양 기관은 올해 10월 공개되는 동아시아디지털도서관이 동아시아 디지털 문화유산의 새로운 접근을 제공하는 명실상부한 공유 협력의 장이 될 수 있도록 차질 없이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문의 국제교류홍보팀 02-590-6328

### 국립중앙도서관, 소년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 체결

국립중앙도서관, 법무부,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8월 19일 법무부 대회의실에서 「소년원 독서활동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업무협약은 국립중앙도서관에서 추진하는 「2020년 청소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소년원 청소년들에게 독서 활동을 장려하고 소년원 내 안정적인 독서 환경 조성을 목적으로 체결됐다. 협약 주요 내용은 ▲소년원 도서 지원 ▲소년원 학생 독서 관련 프로그램 지원 ▲법률, 문헌정보, 출판 관련 분야의 자료 공유 등이다. 국립중앙도서관은 공모·선정된 서포터즈 공공도서관 5개관과 함께 소년원 학생 대상 독서문화 프로그램 지원, 책 꾸러미 제공, 찾아가는 도서관, 멘토-멘티 프로그램 등 「2020년 청소년 도서관과 함께 책 읽기 시범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출판문화산업진흥원은 소년원 학생들의 올바른 독서습관 내면화를 돕기 위해 4000여 권의 도서를 전국 소년원 및 분류심사원에 공동 기증하기로 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기획협력과 02-3413-4776



### 국립중앙도서관,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간 업무협약(MOU) 체결

국립중앙도서관은 6월 30일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과 도서관 대회의실에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주요 협약 내용은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수집과 공유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보존을 위한 표준화 등 기술 교류 및 개발 협력 ▲인공지능, 빅데이터 분석 등 기술기반의 지능형 정보서비스 제공 및 개발을 위한 연구 협력 ▲국가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서비스 협력 ▲공동학술행사·전시회 개최,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문헌정보·과학기술 분야의 발전을 위한 협력이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 기관은 디지털 지식정보자원의 공동 활용과 디지털 보존을 위한 기술 협력 기반을 구축하고 빅데이터 활용 분석 지원, 국가 연구개발 성과 활용·확산 촉진을 위한 데이터 공유 및 서비스 협력 등 디지털 전환 시대의 새로운 기술기반의 지능형 정보서비스 개발을 위해 상호 협력해나갈 예정이다.

문의 디지털기획과 02-590-6225



### 국립중앙도서관, 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 소스 공개

국립중앙도서관은 7월 8일 공공도서관 자료관리시스템(이하 KOLASⅢ)과 시스템의 원천소스를 공개했다. 누구나 자유롭게 KOLASⅢ의 사용, 복제, 수정, 재배포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번에 공개한 KOLASⅢ는 도서관 표준업무체계를 준수하고 있으며, 지역도서관에서 요청한 책드레와 책이음 상호대차 기능 등이 포함되어 있다. 개선된 서비스와 더불어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각 도서관이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KOLASⅢ 개발 소스를 전격 공개했다. 이용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국립중앙도서관의 ‘공공도서관 기술지원센터 누리집(<http://kolas.nl.go.kr>) - KOLASⅢ - 오픈소스 바로가기’에서 확인할 수 있다. 또한, 국립중앙도서관은 소스 코드 제공 방법, 라이선스 정책, 개발 및 설치가이드 등을 안내하고 기술지원도 한다.

문의 정보시스템운영과 02-3483-8877



### 국립중앙도서관, ‘EBS FM 한국단편문학 30’ 제작

국립중앙도서관과 한국교육방송공사(이하 EBS)는 『EBS FM 한국단편문학 30』 오디오북을 제작하고, EBS FM(104.5MHz)을 통해 방송한다. 올해 말까지 국립중앙도서관 사서가 추천한 총 30편의 한국단편문학을 EBS 라디오를 통해 들을 수 있다. 『EBS FM 한국단편문학 30』 오디오북은 사서의 목소리로 전하는 서평과 함께 작품의 주요 부분을 소개하는 구성이다. <오디오천국>(오후 5~7시)을 통해 8월 18일부터 강경애 『원고료 이백원』, 김유정 『봄봄』, 현진건 『B사감과 러브레터』 3편이 방송됐다. 9월부터 연말까지는 주 2회 방송 예정이다.

문의 디지털기획과 02-590-0562



###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디지털 미디어 소양교육 영상 공개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은 어린이·청소년 대상 디지털 미디어 소양교육 영상인 ‘슬기로운 창작 생활’을 도서관 누리집([www.nlcy.go.kr](http://www.nlcy.go.kr)) 및 유튜브에 공개했다. 이번 영상은 자극적인 콘텐츠에 노출되기 쉬운 환경에서 어린이·청소년들이 창작자로서의 기본 자질을 익히고, 올바른 정보 활용과 콘텐츠 제작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제작한 것이다. 어린이·청소년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귀여운 도서관 및 동물 캐릭터를 활용하여 콘텐츠를 창작·배포할 때 주의해야 할 사항인 저작권 이해, 정보 활용과 보호, 올바른 소통 등 미디어 윤리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애니메이션 영상으로 제작했다. 디지털 미디어 소양교육 영상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도서관 누리집, 유튜브와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문의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정보서비스과 02-3413-4815

### 국립세종도서관, 인공지능(AI)으로 책 추천

국립세종도서관은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AI) 도서추천 ‘플라이북 스크린(FlyBook Screen)’ 서비스를 선보인다. 이 서비스는 빅데이터 기반의 인공지능을 통해 나이, 직업, 관심 분야, 현재의 기분 등에 맞는 도서를 개인 맞춤으로 제공한다. 추천받은 도서는 대출 가능 여부를 즉시 확인할 수 있으며, 문자메시지로 자료 위치를 안내받을 수 있다. 43인치 대형 터치스크린 기기의 ‘플라이북 스크린’ 서비스는 도서관 1층 인문예술자료실과 지하 1층 어린이자료실에서 이용할 수 있으며, 누리집([sejong.nl.go.kr](http://sejong.nl.go.kr))을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문의 국립세종도서관 서비스이용과 044-900-9205



##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행사

■ 행사 기간 2020년 9~10월

■ 행사 개요

○ 심포지엄: 개관 75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정책정보서비스 세미나, 어린이청소년서비스 세미나

○ 부대행사: 75주년 기념 전시, 문화 행사, 도서관 견학 및 홍보 이벤트 등

주관기관	행사명	행사내용
국립중앙도서관	개관 75주년 기념식 및 심포지엄	○일시: 2020년 10월 8일(목) 13:50~17:40 ○장소: 본관 국제회의장 ○내용: 기념식 및 심포지엄 <미래, 공존, 가능 - 도서관의 시대> ○참석 대상: 도서관 관계자 등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어린이·청소년 도서관 서비스 세미나 (블렌딩)	○일시: 2020년 9월 22일(화) ○장소: 한국과학기술회관 대회의실 ○내용: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어린이·청소년 도서관서비스 ○참석 대상: 사서 및 도서관 관계자 등(현장+온라인)
국립세종도서관	정책정보서비스 세미나	○일시: 2020년 9월 17일(목) ○장소: 세종도서관 세미나실 ○내용: 정책정보서비스의 현황과 향후 과제 ○참석 대상: 사서 및 도서관 관계자 등

주관기관	행사명	행사내용
국립중앙도서관	고바우 특별전	○기간: 2020년 9월 8일(화)~10월 31일(토) ○장소: 본관 1층 전시실 ○내용:故 김성환 화백의 작품, 개인 수집품, 애장서 등
	1인 미디어 아카데미 원데이 클래스	○일시: 2020년 10월 7일(수) ○장소: 디지털도서관 미디어교육실 ○내용: 일반인 대상 스마트폰을 활용한 동영상 제작 교육 및 도서관 홍보
	75주년 기념展	○기간: 2020년 10월 8일(월)~10월 30일(금) ○장소: 본관 1층 열린마당 또는 로비 ○내용: 귀중본 및 희귀본, 도서관 역사자료, 발간자료 등
	인문학 특별강좌	○일시: 2020년 10월 14일(수) ○장소: 디지털도서관 대회의실 ○내용: 도서관 소장 희귀본 관련 고문헌 강좌
	예술인 활용 전시·공연	○기간: 2020년 10월 ○장소: 본관 1층 열린마당 ○내용: 도서관, 책을 매개로 한 인공지능 활용 전시
	저자와의 만남	○기간: 2020년 10월 ○장소: 본관 1층 열린마당 ○내용: 저자 강연, 낭독 공연, 저자 사인회 등
	도서관 투어	○기간: 2020년 10월(총 4회) ○장소: 본관, 서고, 디지털도서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미공소 축제 (온라인)	○기간: 2020년 9월 20일(일)~9월 30일(수) ○장소: 누리집, 유튜브, SNS 등 ○내용: 미공소 1주년 기념 영상, 창작 체험 등
국립세종도서관	축하해, 뽀빠	○기간: 2020년 9월 9일(수)~9월 27일(일) ○장소: 세종도서관 전시실 ○내용: 뽀빠롱스타킹 원화 및 도서, 아스트리드 린드그렌 작품 등

\*코로나19로 행사가 온라인으로 대체 운영 또는 취소될 수 있으니, 개별 도서관 누리집에서 확인 바람.

국제도서관협회연맹(IFLA), 지난 10년간의 국가별 도서관 투자자본수익률(ROI) 검토

지난 7월 17일, 국제도서관협회연맹은 지난 10년간 각국에서 진행된 국립·학술·특수 도서관의 ROI 측정치를 정리한 결과물을 보고서로 공개했다. 투자자본수익률(ROI)은 경제학에서 시작되어 주로 민간 분야에서 투자 비용대비 산출된 효용을 측정하는 방식이다. 이를 공공영역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졌고, 도서관에서도 ROI를 도입 및 수정하여 도서관의 가치와 영향력을 판단하는 방법으로 사용해왔다. 공공도서관의 ROI는 한국 3.66:1(2013년), 호주 2.9:1(2013년), 캐나다 토론토 5.63:1(2013년)이고, 학술도서관 부분은 미국 시라쿠스대학교도서관이 4.49:1(2013년)로 나타났다. 이번 보고서는 지난 10년 동안 여러 유형의 도서관에서 진행한 업무에 관한 가치와 ROI를 측정하는 방식에 관한 검토 결과로, 원문 번역은 월드라이브러리 369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미국도서관협회, 2020년도 미국 도서관 동향 보고서 발표

미국도서관협회(ALA)는 4월 19일부터 25일까지 미국 도서관주간에 발표된 미국 도서관 동향에 대한 연례 요약 보고서인 ‘2020 미국 도서관 동향’ 보고서를 홈페이지에 공개했다. 보고서는 전년도 모든 관종의 미국 도서관에 영향을 미친 통계와 이슈를 담고 있다. 보고서에 따르면, 2019년 도서관의 인기가 계속 높아졌다. 2019년 미국 성인들은 매년 평균 10.5회씩 도서관을 방문한다고 보고했다. 이는 영화, 박물관, 동물원 방문 등 다른 일반적인 여가 활동보다 높은 빈도수이다. 학술도서관은 700만 명 이상의 학생들에게 강의를 제공했다. 약 80만 건의 강의 중 57% 이상이 디지털 또는 전자 활동을 통해 이루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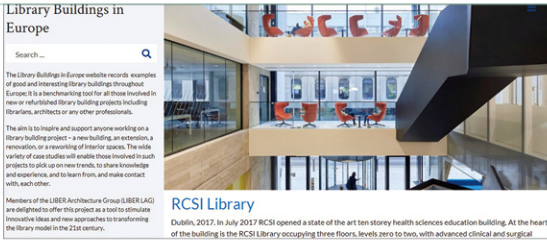


UN 지속가능발전목표에 관한 유럽 최초 보고서 발간

유럽도서관정보문서협회(EBLIDA)가 ‘지속가능발전목표와 도서관 - 제1차 유럽 보고서’를 자관 홈페이지를 통해 발표했다. 이는 유럽 도서관에서 SDG 프로젝트를 옹호 목적으로 관리자와 정책 입안자들에게 들려주고, 도서관 업무를 2030 지속가능발전 의제의 광범위한 범위에 포함시킬 수 있는 완전한 개념으로 지도하려는 첫 시도다. 도서관을 유럽 2030 의제와 연결하면 광범위한 정치 구조에서 번창할 수 있으며, 각 목표에 할당된 특정 정책에서 발전할 수 있다. 첫 번째 보고서는 17개국의 프로젝트와 정책을 다룬다. 주세페 비티엘로 EBLIDA 이사는 “EBLIDA는 이 프로젝트들이 유럽의 지원금을 통해 어떻게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법을 찾을 것”이라고 말했다.

유럽전문도서관협회, 도서관 건축 관련 웹사이트 선보여

유럽전문도서관협회(LIBER)와 ‘LIBER 건축 그룹’은 유럽 도서관 건축 관련 웹사이트를 선보였다. 유럽 전역의 흥미로운 도서관 건물이 기록되어 있는 이 웹사이트는 새로운 건물 건설, 증축, 개조 또는 내부 공간 재배수 등 도서관 건축 프로젝트에 종사하는 모든 사람에게 영감을 주고 지원하기 위해 제작됐다. 사진과 함께 제공되는 건축물 세부사항을 통해 이용자들은 새로운 도서관 건축 동향을 파악할 수 있다. 개관 연도, 총비용, 프로젝트 유형, 총 바닥 면적, 공공장소, 직원 수, 총 좌석 수, 개관 시간 등 카테고리 검색을 통해 보고 싶은 도서관 건축 모델을 탐색할 수 있다. 해당 사이트에 업로드된 도서관의 관종은 국립 및 대학 연구 도서관, 대학원 수준의 교육 및 연구를 수행하는 기관의 도서관, 주요 연구 자료가 있는 공공도서관 및 국가 기록 보관소가 포함되어 있다.



\*국의 도서관 소식은 월드라이브러리(<https://wl.nl.go.kr>)에서 더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심포지엄

문화행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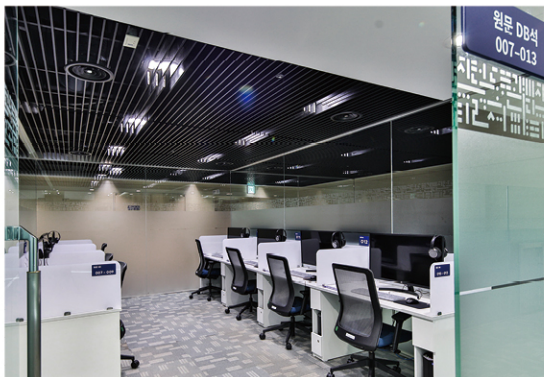




디지털자료실

## 원문 자료를 온라인으로 열람하는 디지털 자료 이용법

국립중앙도서관은 각종 출판물과 지식정보를 수집·보존하고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국민에게 제공하고 있다. 또한 변화하는 디지털 시대에 발맞춰 디지털 자료를 납본·기증받거나 소장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온라인 자료로 서비스한다. 국립중앙도서관의 디지털 자료 이용법을 알아보자.



### 자료 검색

####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 및 자료모음 섹션 활용

국립중앙도서관은 납본·기증 등 다양한 방식으로 수집한 온라인 자료를 서비스하고 귀중본, 유일본 등 희소성이 높은 자료를 비롯해 발행한 지 5년이 지난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제공한다. 모든 소장 자료가 디지털화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서 국립중앙도서관 누리집(홈페이지: <http://www.nl.go.kr>)에서 디지털 자료가 있는지 검색해 확인해야 한다.

누리집에는 디지털 자료가 한데 모여 있는 ‘디지털화 자료’, ‘Web DB’ 등의 섹션이 있다. 누리집 상단의 ‘자료 검색’에서 ‘디지털화 자료’를 클릭하면 원문 유형별, 주제별로 분류된 자료와 신문별로 분류된 자료를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자료 검색’의 ‘Web DB’에서는 국내외 데이터베이스와 전자저널 등을 검색할 수 있다.

### 자료 열람

누리집 검색창에서 자료를 검색했을 때 자료명 오른쪽에 ‘원문보기’ 표시가 있는 것은 온라인으로 열람할 수 있는 자료다. 디지털 자료는 장소에 관계없이 어디서나 열람할 수 있는 자료도 있지만, 국립중앙도서관과 협약도서관 내에서만 열람 가능한 자료가 있다. 또 무료로 볼 수 있는 자료와 유료로 보는 자료가 있는데, 누리집에서 자료를 검색하면 디지털 자료 열람 가능 장소와 과금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관외이용]-무료 도서관 밖에서도 무료 열람

[국립중앙도서관]-무료 도서관 내에서만 무료 열람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열람, 인쇄 시 과금 국립중앙도서관, 협약도서관 내에서 유료 열람·인쇄(이용자 부담 없음, 열람·인쇄를 위한 저작권료는 국립중앙도서관이 부담)

### 자료 출력

디지털 자료에서 필요한 부분은 인쇄가 가능하다. 도서관 밖에서도 열람할 수 있는 자료는 화면의 인쇄 버튼을 클릭하면 원하는 페이지를 어디서나 자유롭게 인쇄할 수 있다. 도서관 내에서 이용할 수 있는 자료는 디지털도서관의 디지털 열람실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디지털 열람실 프린터기에서 인쇄하면 된다. (\*복사 용지 비용은 이용자 부담)

#### 누리집 검색창에 검색어 입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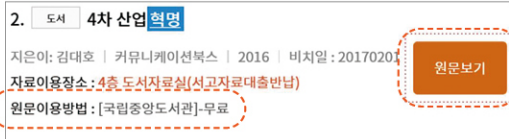
검색어를 입력해주세요.

또는

#### 누리집 자료모음 섹션 활용



#### 원문이용방법 확인 및 원문보기 클릭



#### 우측 상단 '인쇄' 버튼 클릭

